금주의 기도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죽고 죽이는 세상 인간들이지만 살인무기는 세상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깨닫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11)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9월 5일 (토) 제 154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총기협 로비 · 국민 '반짝' 관심 극복해야만!

미 언론, 버지니아 생방송 중 피격사건계기로 본격화된 '총기규제법안' 전망 제시

미국에서 총기규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흑인교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미국 언론들은 백인우월주의자인 범인의 행적을 조명하는 동시에 약물중독자였던 그가 총을 손에 쉽게 넣을 수 있었다며 총기규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여기에 버지니아주에서 생방송 중이던 방송기자 2명이 피격당해 사망하자, 미국내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총기 개인소지 합법화는 잦은 총기난사의 주범으로 꼽힌다. 따라서 미 언론은 일제히 이번 생방송 피격 사건이 과연 미국 사회 '뜨거운 감자'인 총기 규제 찬반 논란을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을 지,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총기소유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국 가정 3분의1이 총을 갖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총기소유 가정은 전체의 31%였다. 인종 별로 백인(41%) 히스패닉(20%) 흑인(19%) 순으로 많았다. 시골(51%)이 도시(25%)의 2배였으며 총기소유자의 연령은 50세 이상이 대부분(80%)을 차지했다. 총기소유자 거주 지역은 남부(38%)가 가장 많아 종합하면 미국에서도 '남부 시골에 거주하는 백인 노인'들이 총기를 소유할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01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선 198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0년 동안 최소 4명 이상 사망한 공공장소 총기난사 사건이 78건 있었고, 이 사건으로 547명이 사망했다.

이중에서도 '액티브 슈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주로 개인 단독 범행으로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화기를 이용해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시도하는 살인사건 유형을 액티브 슈터로 정의하고 있다. 뉴욕경찰국(NYPD)의 통계에 따르면 범인은 경찰에 의해 사살(47%)되거나 자살(40%)하는 게 대부분이다. 미국 콜럼바인고교, 버지니아공대, 샌디훅초교에서 발생했던 총기난사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미국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액티브 슈터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총기난사 사건은 2000-2006년 연평균 6.4회 발생했지만 2007-2013년에는 연평균 16.4회 일어났다.

총기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분명히 커지고 있지만 막상 오랜 전통으로 굳어진 총기소유권을 제한하려면 여러모로 정치적 희생이 뒤따른다.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법 개혁의 모범 사례로 꼽는 호주도 엄청난 저항에 맞닥뜨려야 했다.

버지니아 생방송중 총격 사건이 일어난 후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호주 총기법 개혁의 발단이 된 사건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참사인 포트 아서 사건이다. 정신분열증을 앓던 마틴 브라이언트란 청년은 1996년 유명 휴양지인 포트 아서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관광객 등 3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당시 보수연립 정부를 이끌던 존 하워드 총리는 사건 발생 12일 만에 총기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발이 가능한 총기류는 금지되고 나머지 총기류는 전국적인 단일 기준에 따라 등록됐다. 총기소유 면허는 엄격해졌고,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약 60만정에 달하는 총기를 다시 사들여 이를 모두 폐기처분 했다.

불법 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와 사면조치도 더해졌다. 총기소유 옹호론자들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다. 멜버른에 있었던 총기소유제한 반대 집회에는 7만명이 모여 베트남전 반전시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게다가 보수당의 표밭인 농촌지역에서 저항이 강력했다.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밀어붙인 총리의 결단과 정치력이 없었다면 개혁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미국은 총기난사의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총기규제론은 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기규제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199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퀸즈장로교회, '2015 함께하는 찬양축제'

"그의 성소에서 그를 찬양할지라"

찬양제를 마치고 모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앞줄 가운데 왼쪽 장영춘 목사 부부와 김성국 담임목사 부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한 '2015 함께하는 찬양축제'가 8월 30일 오후 4시 전 교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김성국 목사는 시편 150:1-6을 본문으로 "그의 성소에서 그를 찬양할지라"라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은혜가 우리에게 뿌려진 씨라면 찬양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할 열매다. 우리 모두 찬양하는 성도가 되자. 믿음으로 찬양하자. 소망 가운데 찬양하자. 찬양하는 퀸즈장로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은혜 받은 자들 찬양으로 나타내야"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는 찬양이 교회부흥 원동력 됐다"

김성국 목사는 이날 퀸즈장로교회 교역자 중창팀이 부른 "사랑의 종소리"를 함께 찬양하며 순서에 없는 깜짝 무대를 선보였다.

찬양축제에는 4개 예배 찬양대 및 관현악대, 그리고 성과 나이에 따라 합창대가 자리를 했다. 42주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오인수 목사가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팀이 먼저 섰다. 경배와 찬양팀은 싱어팀, 악기팀, 바디워십팀으로 구성돼 목소리, 악기,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예배 찬양대로는 임마누엘 찬양대(주일1부 예배), 호산나 찬양대(주일2부 예배), 시온 찬양대(주일3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주일4부 예배)가 섰다.

4개 찬양대는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을"(지휘 소유영), "넉넉히 이기느니라"(지휘 최진식), "주님여 이 손을"(지휘 윤원상), "위대하신 주"(지휘 최경희)를 각각 연주했다.

3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관현악대는 각종 절기예배의 특송과 오케스트라로 찬양에 동참하고 있으며, 운원상 전도사의 지휘로 "예수의 이름"을 연주했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3. 박사: 목회학(D.Min)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정회원 / ATS 정회원 / TRACS 정회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말라!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14면 하나님의 구원계획 라홍채 목사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6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5) **리스팅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안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시 론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 되리라!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얼마 전 큰아들이 여러 나라를 돌아 한국에 간다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목침지뢰 사건으로 출발하여 포격사건과 남북의 긴장이 양극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때라 마음앓이를 했습니다. 다행히 일단은 진정상태가 되었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은 거 같아 마음 놓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과 한민족의 광복절을 생각해봅니다. 애굽의 지도자 바로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비교해 볼 때, 당시 애굽의 바로는 주변 지역들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모세는 80세의 노인으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목동에 필요한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애굽의 바로를 당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진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유월절 기억과 기념의 핵심은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생각해봅니다. 입으로 담기 어려울 정도의 만행을 저지른 1940년대 당시의 일본은, 모세 당시의 애굽과 같이 지상에서 강력한 군대 중 하나였고 우수한 전술과 무기를 소유했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각기 처소 등지에서 투쟁했지만, 당시 일본은 조선이 때려 부수고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독립인 출애굽과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페르샤를 들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는 하나님, 즉 이 나라 저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일본을 항복하게 만드신 것이 해방이요 광복입니다 우리 조선이 강해서도 아니고 일본이 약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삼천리강산 2천만 민족을 몽땅 통째로 삼킨 지 날짜로 계산해서 12,771일 만에 일본은 한국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이 해방이고, 그것이 8.15광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같이 광복절의 핵심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세계로부터 오는 구제품으로 연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역규모가 1조 달러로 세계에서 11번째, 배를 설계해서 만드는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국내 항구와 공항에서 처리하는 화물량도 각각 세계 5위, 얼마 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세계 237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파워 세계 13위"라고 합니다. 외형상 세계인구의 0.7%, 세계 전체 넓이의 0.07%에 불과한, 세계지도를 보면 중국에 붙어있는 토끼 모양의 작은 나라 그것도 토끼 절반인 한국이 이런 막강한 국가 경쟁력을 지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민족 특유의 근면 성실성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한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독립이요 해방입니다. "광복의 완성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7:15 이하 말씀에 한민족을 넣습니다. "막대기 하나에다가 대한민국과 그의 자손들, 다른 막대기 하나에다가 북한과 그의 자손들이라고 쓰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그 막대기를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즉 분단국인 한반도, 한민족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등이 아니라 "내 손 안에서 둘이 하나 되리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1980년부터 니콜라이교회에서 시작되어 매주 모이는 월요기도회는 10년 이상 계속되면서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독일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서독의 콜 수상이 1990년 5월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언제쯤 독일이 통일되리라고 봅니까?" 질문에 "역사의 신이 돕는다면 한 십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단 5개월이 지나 1990년 10월, 독일은 통일됐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광복의 완성인 통일"을 달라고, 남북 적대구조의 전쟁이 재발하지 않고 "평화통일"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워 남북의 "사람들과 마음의 분단의 벽"을 허물게 해달라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인 우리를 들어 한반도, 한민족 평화통일을 위해 사용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들 세대에는, 부산-서울-개성-평양-신의주-단동--북경-몽고-시베리아-모스크바-독일-스위스-프랑스-영국까지 한반도, 한민족의 기차가 달려야 합니다. 그 철길을 따라 한류의 세계화를 꿈꾸는 수많은 작은 거인들의 걸음걸음들이 이어집니다.

통일 이전에도 세계 13위의 국가 경쟁력인데 통일 후의 국가경쟁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반도, 한민족의 웅비론을 그려보며 가슴 벅찹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한민족 유산입니다. 그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올해로 해방을 주신지 70년입니다. 한번 더 역사하셔서 평화통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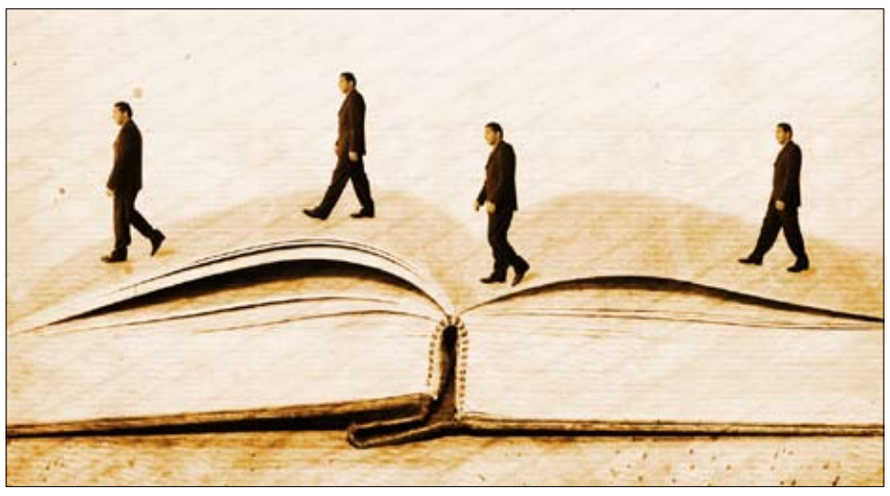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말라!

리더십저널, P. 스카지로 목사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방법과 자기 진단법 소개

'사람들의 영혼이 달려 있는데, 어찌 내 가정의 안위만을 생각하겠는가'라며 주님을 향해 질주하던 목회자에게 자기 최면이 깨질 때가 있다. 리더의 내적 붕괴, 가정의 파탄, 교회의 분열 등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되돌아볼 때가 있다. 바로 그때가 고통스럽지만 당신의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순간이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는 뉴라이프펠로십 교회를 26년 간 목양하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가 되어야만 이러한 리더십의 붕괴 위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고 권면한다.

사역이 자신을 삼킨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온통 사역에 몰두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변화보다 숫자와 헌금의 액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리더의 가정이 붕괴되고 갈등을 억누르고 있다면, 리더 자신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멈추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순간이다.

따라서 스카지로 목사는 "리더의 내적 삶을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Emotionally healthy leader).



목회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전임 사역의 길에 들어선다. 사역 초창기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귀할 수 없다. 열심을 다해 헌신하다 보면 열매가 보이고, 사역이 여러 분야로 발전하며,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쁜 사역 때문에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에 따라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사역의 책임을 맡다 보면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비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진다. 어느덧 사역은 내 영성으로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가정, 리더십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며, 사역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지배하기 시작하게 된다:

-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는 갈 수 없어. 내 리더십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 어떻게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 더 나은 리더가 되고 싶다. 뭐든지 배울 자세는 되어 있는데,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내일 당장이라도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만 같아요.

-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중간관리자라서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없어.

-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 프로그램을 열심히 진행하기는 하는데 인생 변화의 기적은 보이질 않아. 이젠 지쳤어.

- 일에 치여서 삶이 즐겁지 않아. 리더로서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에도 개인적인 삶에도 남들과의 관계에도 기쁨이 없어.

사역이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했지만 리더의 정서적인 건강 상태는 날로 피폐해질 수 있다.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사역의 보람과 기쁨보다는 책임과 부담이 마음속에 가득해진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의욕은 바닥을 치고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한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는 정서적인 건강을 해치면 사역에도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골치 아픈 회의라면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한다.

-사실을 드러내기 곤란할 경우에는 진실을 살짝 왜곡시켜 말한다.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평가를 회피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도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지적하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깊은 고민과 기도 없이 중요한 모임과 회의 자리에 참석한다.

-추진하고 싶은 사역인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린다.

-일만 벌여놓고 관리와 책임을 소홀히 한다.

-중요한 기획 회의들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최악의 실수는 내 삶과 목회가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역의 속도를 늦추고, 안식과 영성 훈련을 통해 회복할 계획을 세운 뒤, 이를 실행해야 한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 당신의 리더십, 즉 정서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본다.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겨보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신에게 해당하는 평가를 숫자로 기록해보자.

(5=항상 그렇다 / 4=자주 그렇다 / 3=가끔 그렇다 / 2=거의 그렇지 않다 / 1=전혀 그렇지 않다).

△충분한 시간을 내어 분노와 두려움, 슬픔 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다스린다.

△윗대의 문제가 내 관계와 리더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다.

△(기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리더 역할보다 가정을 더 중시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M.Div 학위과정에 입학하시는 선교사님들께
50% 특별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총기협 로비&국민 '반짝' 관심 극복해야만!

〈1면에서 계속〉

지난해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47%만이 총기판매 제한을 포함하는 총기규제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년도(49%)와 비슷한 수준으로, 샌디훅초교 총기난사 사건 직후인 2012년(58%) 급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응답자의 38%는 규제를 지금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14%는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P는 지난달 27일 총기난사 사건 발생 장소에서 총기소유를 옹호하는 공화당 득표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하지만 코네티컷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톰 폴리의 득표율이 2012년 발생한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초교 총기난사 사건 이전인 2010년 주지사 선거보다 169개 타운에 걸쳐 평균 0.16%포인트 떨어져 큰 차이가 없었다. 단지 샌디훅초교가 위치한 뉴타운에선 7.65%포인트로 눈에 띄게 떨어졌을 뿐이다. 2010년과 2014년 주지사 선거에선 모두 같은 후보가 경쟁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난사 사건과 악연이 깊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내 군 기지, 영화관, 초등학교, 교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6년 동안 2009년 11월 포트 후드부터 최근 찰스턴 흑인교회까지 공식 석상에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열 두 차례 이상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번째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첫 쓰라린 정치적 패배를 맛보게 한 것도 총기규제법이다. 2년 전 민주당 소속 조 맨신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상원의원이 총기거래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 전과조회를 골자로 한 초당적 포괄 법안을 내놓았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패배이자 미국총기협회(NRA)의 승리로 평가했다.

미국 총기규제법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NRA다. NRA는 미국의 어떤 이익단체보다도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 2001년 5월에는 포천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익단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NRA는 지난해 로비에만 300만 달러를 쓰고 2,800만 달러를 대외지출에 쏟아 붓는 미국 최고의 정치자금원이다.

NRA는 총기규제법 강화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총기소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무기 소장과 휴대의 권리를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제2조를 총기소유의 정당성과 연결시킨다. 이를 두고 총기소유 반대론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무장이 필요한 군대에만 해당하는 권리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앞선 판결들에서 법원은 총기소유 옹호론자의 손을 들어줘왔다.

정당방위를 위해서 총기소유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웨인 라피에르 NRA 부회장이 샌디훅초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총을 든 나쁜 사람을 막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총을 든 좋은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총기소유 반대론자들은 통계를 들어 이를 반박한다. 미국 폭력방지정책센터(VPC)가 FBI와 법무부 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민간인들이 총기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8,342건이었지만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 살인을 한 경우는 258건에 그쳤다.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이 1건 발생할 때 총기를 이용한 살인은 32건이나 발생하는 것이다. 또 총기로 인한 자살과 우발적 총격사건이 매년 2만2,00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RA의 주장과는 다르게 총이 안전보다는 피를 부른다고 통계는 말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총기규제법 강화를 추진하려면 NRA와 국민들의 반짝 관심을 극복해야만 한다. 총기규제법 강화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다.

글로리아 선교중창단이 찬양하고있다.

마지막에 이날 찬양한 모든 찬양대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있다.

퀸즈장로교회, '2015 함께하는 찬양축제'

〈1면에서 계속〉

이어 4개 합창대, 그레이스(60세 이상여성), 킹스콰이어(35-57세 남성일꾼), 블레싱 콰이어(35-57세 여성일꾼), 글로리아 선교합창단(1995년 조직, 장영춘 목사의 세계선교사역 후원)의 찬양이 이어졌다.

각 합창대는 한복 등 의상을 갖춰 입고 각각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과시했다.

이어 찬양축제에 참가한 온 회중과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찬양했으며, 출연한 모든 성도들이 연합 찬양대를 구성하고 칸타타 "할렐루야"를 찬양했다. 이어 장영춘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축도한 장영춘 원로목사는 "교회개척 후 찬양을 많이 신경을 썼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찬양이 교회부흥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말라!

〈2면에서 계속〉

△(미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리더 역할보다 싱글로서의 삶을 더 중시한다.

△(기혼): 예수님과의 연합이 배우자와의 연합으로 이어진다.

△(미혼): 예수님과의 연합이 친구 및 가족들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진다.

△아무리 바빠도 홀로 있는 시간과 묵상과 영성 훈련을 꾸준히 실천한다.

△남들을 섬기는 일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기 위해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매주 안식일을 정하여 지킨다. 그날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24시간 동안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을 즐긴다.

△안식일을 내 개인적인 삶과 리더로서의 삶에 꼭 필요한 영적 원칙으로 여긴다.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 결정을 할 때 출석률 증가, 프로그램의 질,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 확대 같은 척도보다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행하는가'를 성공 기준으로 여긴다.

△내가 맡은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정해 두고 꾸준히 투자한다.

결론으로, 리더의 외적인 활동은 그 사람의 내적인 삶과 깊이 연결돼있다. 이 사실을 발견할 때, 리더는 비로소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201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보시기 바란다.

자신의 쓴뿌리를 하나님의 빛 아래 두고, 사역과 가정을 단절시키지 않고, 삶의 속도를 늦추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온전하지 못한 리더십은 가정과 교회를 곪게 만든다. 따라서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해, 자신의 삶을 재배치해야 한다. 빙산의 일각처럼 숨겨진 리더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에 닿을 때,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들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로 살아가기(2)

다 내려놓기

필자가 35년간 섬긴 충신교회는 중대형교회군에 들지 못한다. 그러나 이곳저곳 필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교회 본 예배당 외에 유치원, 아기학교, 교육관, 새 성전 부지 등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동부이촌동 5군데 부동산이 흩어져 있다. 경기도 마석에 있는 수양관 '말씀과 기도의 집' 6만 여 평, 강원도에 있는 산야 등 필자 재임 기간에 매입하거나 건축한 것들이다. 매매가 어렵겠지만 합산하면 수천억에 이른다.

그뿐인가? 30대 중반 담임목사로 청빙 받고 35년간 삶과 정열을 쏟아 부어 교회를 섬겼다. 1백여 명 정도의 교회가 1백배로 성장하는 은총을 입기도 했다.

그렇게 일군 안방을 어느 날 후임에게 넘기고 담장 밖으로 밀려났다고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지고, 아깝고, 서럽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 은퇴 후 할 일은 없고, 고독은 밀려오고, 옛날은 그립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은퇴자도 더러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내 돈 주고 매입한 내 땅인가? 내 돈으로 지은 건물인가? 그래서 내 소유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셨다. 나는 청지기였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다 내려놓기가 수월하다. 여기서 꼬이면 은퇴 이후가 자칫 추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분별하기

은퇴 이후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든지 이 일 저 일 앞뒤 가리지 않고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퇴목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별 볼일 없는 것들이고 영양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마치 감투처럼 여긴다든지 광영으로 생각한다면 득보다 실이 커진다. 그리고 교묘한 접근으로 다가서는 사람들도 경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아류의 사람들은 아첨배가 아니면 사기꾼이기 때문이다.

간섭안하기

내가 낳고 키우는 자식도 잔소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물며 자리를 떠난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면 누가 그를 반기며 좋아하겠는가? 목회 성패는 후임목사가 져야 할 몫이다. 원근을 가리지 않고 관여하고 간섭하다 보면 마침내 옹벽이 쌓이게 된다.

칭찬하기

"후임이 잘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도 있고, "글쎄요. 잘하고 있겠지요"라든지 "후임 선택을 후회합니다"라고 답할 수도 있다. 누가 선택했든 상관없이 후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칭찬하는 것이 원로나 은퇴목사의 정도다. 잘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호통치고 비난하는 것보다 약효가 빠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모 교회 원로목사는 주일마다 후임자의 설교를 비평하고 주위에 교인들이 서 있어도 개의치 않고 "그걸 설교라고 했느냐"며 다그쳤다고 한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원로목사의 설교도 별로였다는 것이다. 칭찬하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비난도 마찬가지다.

후임목사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

후임목사가 걸어야 할 정도는 무엇인가?

우리 시대는 사회윤리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거친 황야처럼 사람들의 심성이 나쁜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교회라고 다를 게 없다. 고소, 고발이 꼬리를 물고 반목과 대립이 활개치고 있다. 선후배나 사제지간의 윤리도 붕괴되어 가고 있다. 큰 교회 담임이 되면 사람도 큰 사람인양 오만을 떠는 사람도 있고, 작은 교회 목회자라며 저항과 오기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원로목사와 후임목사, 그들은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선배와 후배인가? 스승과 제자인가? 부자지간인가? 바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호칭했다. 그 둘은 사제지간이었고, 선후배였고, 부자지간이었다. 후임목사가 걸어야 할 정도는 이렇다.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5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❶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❷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❸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❹ 신앙고백서 1부
❺ 명함판 사진(2"×2") 2매
❻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❶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❷ 원서접수마감 : 2015년 9월 4일(금) 오후6시
❸ 입 학 시 험 : 2015년 9월 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❹ 개 강 부흥회 : 2015년 9월 8일(화) – 10일(목) 저녁 8시
❺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설 교

목회자에게 평생 숙제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는 것처럼 더 큰 즐거움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숙명적으로 이 부분을 늘 고민하고 가슴앓이를 하게 된다. 마치도 결혼한 새댁이 함께 사는 시부모님께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목회의 경력이 많아질수록 설교의 테크닉은 발전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설교는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목회자는 또 고민하게 된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열망하는데 비해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이천년 동안 동일한 것이고 자신의 테두리를 철옹성처럼 지키고 그 것을 벗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본능적으로 항상 새롭고 산뜻한 것을 원하지만 동일한 성경을 성도들이 맛있게 풀어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고로 간혹 유학 경험이 있는 목회자가 새로운(?) 말을 했다가 치도곤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에 설교자는 독특한 발상이 떠올랐다고 해도 그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끔 방문하는 교인들이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부럽다. 그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기에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까 싶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지만 목사로서 그런 목사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그리고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어느 날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목사님 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분의 설교를 들어보았다. 3-40분 동안을 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특별한 점이 없다는 점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말이다. 물론 말 주변이 좋다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말이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말 주변도 없었지만.

이런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그 분을 못 잊어하는데 정작 목사라는 자가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나의 감성과 마음을 우둔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것이야 말로 진솔하게 회개해야 할 부분이 아닐 까 싶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디 믿는 제자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다.

목사는 한 주일에 여러 편의 설교를 작성해야한다. 그리고 성경에 매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다른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방문한 목사 부부를 데리고 이태리 북쪽의 아름다움 산을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탄성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 번 보았기에 새로움이 없다. 바로 이런 식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분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철저한 회개가 아닐까?

무디어진 심령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심령이 될 때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다. 많은 경험은 익숙하게 하지만 그것은 타성에 젖게 하는 지름길도 된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주님, 내게 은혜를 회복하여 주소서. 그래서 감동 있는 설교도 하고 타인의 설교에 은혜 받게 하소서.

푸/ 른/ 초/ 장

정필도 목사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17절)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된 것이 큰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받은 복을 소개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건강해서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아들, 딸이 잘되고 출세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복은 일시적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밤낮 건강한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밤낮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으면 항상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커져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합니다. 그 복은 영원히 계속되는 복이고,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엡1:13-14).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14:16).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3:16).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거듭난 자인지 궁금해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거듭난 사람은 회개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못 견딥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넷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를 생각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사촌 같고 성질이 개떡 같고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말을 잘했는데, 거듭난 후에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서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기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간증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5:14-15).

자기에게는 아주 담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합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과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보십시오.

"아버지,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라고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거룩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어릴수록 기복신앙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봉사하면, 십일조하면 복 받는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명을 다해 전도하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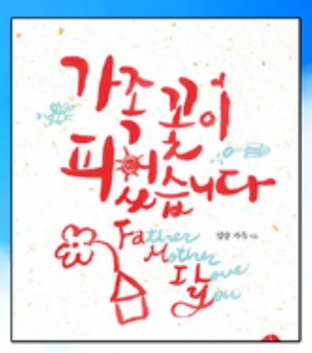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져서 땅위에서 천국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 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 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다.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 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도서



입양가족, 홍성사

데이빗 플랫 저, 두란노

일리스터 맥그래서, 성서유니온

김미진 저, 규장

데이비스 키네먼 저, 국제제자훈련원

게리 채프만, 생명의말씀사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NY, LA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찬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챤 리뷰(시드니,호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앤젤레스, 미국)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이혼에 대하여 (상)

들어가는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51%, 스웨덴 48%에 이어 한국의 이혼율이 47.4%로 3위를 차지했다는 통계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통계' 자료를 보면 이혼 건수가 11만 5300건에 이릅니다.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이혼상태인 '동거이혼'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으며,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공동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학문명의 이기와 조직화된 산업사회,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정보통신의 발달로 공동체 개념이 약화되는 데서 가족 붕괴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이혼 상담자들 중 기독교인이 27%를 차지하고, 불교인 10%, 천주교인 8%로 뒤를 이어, 이혼을 고려하는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사례들과 적용을 살펴보고 과연 현대의 세상 문화에 대해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이혼에 관한 가르침은 항상 결혼에 관한 가르침과 함께 나옵니다. 이는 결혼의 의미를 전제해야만 이혼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에 관한 고전적인 성경 본문들은 신명기 24장1-4절, 말라기 2장 13-16절, 마태복음 5장 31-32절, 19장 3-12절, 마가복음 10장 2-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 고린도전서 7장 7-16절입니다.

1. 이혼에 대한 안목

신구약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합니다. 예수께서는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어 이혼을 허락한 규정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막 10:5) 때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국가에서 세운 법이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혼을 막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이혼을 규제하고 이혼의 가혹함을 완화하며 또한 버려진 사람들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이혼은 항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상을 이루는데 있어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결코 축하할 일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혼한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어야 하지만 이혼에 대하여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슬픔의 원인이며 실패의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성경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때 죄는 아니지만 죄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내리시는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이 불가피한 일이 될 때까지, 이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신청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간음을 용서하는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후에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그 공동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결혼생활을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영적인 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화해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호3:1-5).

그러나 사람들이 이혼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을 때, 그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화해하시기에 앞서 하나님 자신이 비유적으로 이스라엘과 이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호1:9).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는다(렘3:8)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혼은 다양한 경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매 경우마다 연구해보아야만 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2. 이혼에 대한 신앙고백서의 규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은 결혼 전에 발견될 때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취소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간음의 경우에는 순결한 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이혼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인간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으려는 부당한 논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지만, 오직 간음이나 혹은 교회나 정부 관리가 치료할 방법이 없는 고의적 버림 외에는 아무 것도 결혼의 속박을 풀 충분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 있는 소송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서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버려두어져서는 안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6).

3. 성경의 증거들

이혼의 경우에 해당되는 본문은 존 머레이(John Murray)의 "이혼(Divorce)"이란 책의 설명들을 인용하며 음행에 대한 성경해석의 부분은 존 프레임의 윤리학을 인용합니다.

1) 신명기 24장 1-4절

신명기의 말씀은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공식적으로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할 때 두 번째 결혼이 이혼으로 끝이 난 후에 첫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이혼을 장려하거나 단념하게 하지는 않으며, 단지 이혼의 존재를 인정하며 또 단일 사건으로 이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남편은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이 두 번째 결혼이 여자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의 두 번째 결혼은 간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32, 마가복음 10:11-12, 누가복음 16:18의 가르침과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자의 첫 번째 남편은 그녀를 더럽힌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그녀와 이혼했을 때 그는 그녀의 두 번째 결혼이 간음일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후에 첫 번째 남편은 자신이 더럽힌 아내를 다시 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은 남자로 하여금 결혼관계가 가진 위엄과 진지함을 위반하여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암시적으로 이혼이 양 당사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미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는 항상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혼하려 할 때 이혼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2) 말라기 2장 13-1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요, 둘째는 이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려서 취한 아내를 내버렸다는 것이다. 결혼은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제시켜 버려도 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covenant)입니다. 14절에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함으로 결혼이 언약 안에 있는 거룩한 관계인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결혼을 비유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오늘날 되어지는 현상들을 볼 때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옴을 직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휴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휴거에 대해 명확히 나오는 성경구절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지요?
-RPV에서 김난경 권사

A: 먼저 휴거란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휴거에 대한 의미를 가진 성경 4구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휴거 시기는 과거 다미선교회처럼 1992년 10월 28일 12시 등 날자와 시간 계산하는 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습니다(행1:7). 휴거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님이 종말장인 마24:29-30절에서 말씀하신 휴거와 그시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이 모으는 것을 공중휴거로 해석하며 그 시기는 환난 후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성도의 공중휴거는 사실이나 시기는 학자마다 달라

둘째, 사도바울의 휴거와 그 시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것은 두 번 언급합니다. 살전4:16-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분명 성도의 공중휴거를 의미합니다. 이 휴거의 시기는 예수님의 강림(파루시아,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살후2:1-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헬라어: 파루시아,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것은 휴거를 뜻합니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임박한 종말을 말하면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면서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2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적그리스도로 봄)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는 분명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 할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9:27절에 의하면 후삼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예배를 폐지하고 교회에 대해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사도요한의 휴거와 그 시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계11:11-12절을 보면 "삼일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대 환난 이후에 재림과 휴거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공중 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휴거의 시기는 목사님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Eschatology liberty). 환난전 휴거설, 환난중간 휴거설, 환난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주로 세대주의자들은 환난전 휴거설을 지지하며 개혁주의자들은 환난후 휴거설을 많이 지지합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 (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기니비소의 마닌카(MANINKA)

마닌카 종족은 아프리카 북부 평원의 서부와 해안 우림 지대에 거주하는 만데(Mande)로 알려진 보다 큰 종족 그룹의 산하 그룹이다. 마닌카 종족은 숙달된 농부이며, 광부 또 상인이며, 다양한 재주를 지닌 지도자들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마닌카 종족은 한때 강성했던 말리제국의 후손들로 황금과 상아 무역의 관세 수입으로 막대한 이익을 축적한 바 있었다. 제국에 흡수되기 전에 만데 종족은 기장(조) 재배의 발견을 통해 지역 농경문화를 개혁한 사람들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마닌카 종족은 만딩 언어 가운데 하나인 마닌카어를 사용한다. 만딩어는 아프리카 9개의 나라에서 1천1백만 가량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만딩어 가운데는 문자언어가 없는 언어들도 있으나 이들의 구전 문학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삶의 모습

기니 비소는 열대성 기후로 기온은 화씨77도에서 86도를 기록하며, 연중 뚜렷한 계절의 구분 없이 우기와 건기만으로 분류된다. 무더운 우기는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78인치에 달하는 연강수량을 채우는 때이기도 하다. 12월부터 선선한 건기가 시작돼 3월까지 계속된다. 마닌카 사람들은 이러한 열대성 기후의 장점을 농사에 최대한 이용한다. 이들은 무역, 채광 그리고 가축사육 등을 겸하기도 한다. 소는 단지 명망을 얻기 위해서 또는 종교의식을 위한 희생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육한다.

마닌카 종족은 울타리를 두른 큰 촌락들을 이루어 살며, 담장을 친 가족단위의 컴파운드들이 모여 촌락을 구성한다. 이들의 가옥은 진흙과 햇볕에 말린 벽돌로 만든 초가를 얹은 형태이며 전기나 수도를 가설한 집은 거의 없다. 상업 활동이 활발한 도시에 사는 것을 선호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나 종족 촌락과는 여전히 긴밀한 유대를 유지한다.

마닌카 사회는 부계혈통 사회로서 후손의 계승과 재산상속 등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를 이어 이루어지며, 남자는 대체로 둘 이상의 아내를 거느린다. 각 촌락의 수장은 추장이다. 그러나 초기 마닌카 정착민의 장손들은 귀족으로 인정되며 특정한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 마닌카 사회는 신분상의 서열이 뚜렷하다. 장인, 해방노예들, 노래하는 사람들(griots)과 음악가들은 최하위 계급으로서 가장 멸시받는 계층이다. 노래하는 사람들(griots)은 마닌카 구전 전승들을 후대에 전할 책임을 진다.

전형적인 마닌카 음식은 밥에 야채와 고기 또는 생선을 넣어 양념해서 끓인 스튜를 부어 만든다. 망고, 바나나, 오렌지, 빠빠야 그리고 카슈넛 등도 이들의 주식에 곁들여진다.

신앙

마닌카 종족은 이슬람 교리를 그들 고유의 믿음에 접목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났다. 무슬림 상인들이 이슬람을 처음 서부 아프리카에 소개할 때 목적은 이 지역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초기 이슬람 지도자들은 마닌카 종족의 고유 풍습과 신앙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슬람은 단순히 이들의 전통종교와 혼합되는데 그쳤다. 점성술, 치유, 요술 걸기 등은 이들 종교의 주요한 부분들이다. 실제로 마닌카 이슬람의 특정 주술은 특별히 병자를 치료하거나 액운 방지 또는 풍요를 보장하는 등의 효력을 입증했다.

유감스럽게도 마닌카 사람들의 영적 삶에 있어 두려움은 큰 몫을 차지한다. 모스크에서 기도한 후 마을의 정령에게 닭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부적을 한 두 개 정도는 지니고 다닌다.

필요로 하는 것들

그들의 언어로 된 신약성경과 기독교 라디오방송 등의 전도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마닌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주저한다. 이 소중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열쇠는 기도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공화 대선후보 4명 "결혼은 남녀간 결합" 서약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4명이 25일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연방 수정헌법 정의를 지지하는 서약을 했다.

참여자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과 릭 샌토럼 전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의 보수 논객인 벤 카슨 등 4명이다.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인권 등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온 '전국 결혼 수호 단체'(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는 17명의 공화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이들 4명이 자신들이 주관한 서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약은 "대통령이 되면 합법적 결혼을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하고, 전통적 결혼을 찬성하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동성 결혼을 미 50개 주 전역에서 허용한 지난 6월26일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헌법에 입각한 결혼의 의미를 구현할 판·검사를 지명하는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동성애자의 권리정책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이 서약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약은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결혼이 한 남녀의 결합이라고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 또는 협박받은 사례를 조사, 공표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의 브라이언 브라운 회장은 성명에서 "누가 결혼의 진정한 옹호자인지가 대통령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특히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터무니없고 정당성없는 결정을 뒤집기 위해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4명의 후보들이 서약에 참여한 것은 공화당 경선에서 보수층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등 핵심 인사들은 서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은 지난 5월 현재 찬성이 60% 수준으로 파악됐다.

IS에 골치 앓는 이집트-시리아 새 밀월 관계 형성하나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골치를 앓고 있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새로운 밀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IS의 세력 확장과 테러 등의 문제에 직면한 두 국가는 이슬람주의자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적으로 간주하는 공통점도 있다.

31일 영국에서 발행되는 아랍어 일간 '알쿠드스 알아라비' 등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와 시리아 양국의 화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집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안보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이집트가 IS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와 관계 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IS를 포함한 수니파 과격 무장단체의 부흥,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 등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동정심을 느낄지 모른다고 전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나서 "다른 지역 국가와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집트와 시리아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이집트가 러시아의 강력한 우방인 시리아를 염두에 둔 발언이기 때문이다.

알아사드 대통령 역시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주 알마나르TV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집트가 시리아를 겨냥한 발사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이집트가 다른 아랍 국가들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니파 국가인 이집트는 시리아가 시아파 정권인 만큼 관계 회복 과정에서 균형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처지이다. 시리아가 시아파 맹주인 이란으로부터 재정, 군사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엘시시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하고 나서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 국가로부터 수십억달러 상당을 지원받았다. 사우디는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이집트는 2013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중동 국가에 만연할 당시 사우디와 함께 시리아 반정부군을 지지하고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리아와의 관계가 악화했다.

흑백차별 상징인물 동상 철거에 반대측 "IS냐" 비판

미국 대학이 남북전쟁(1861-1865년) 당시 노예제 존치를 내건 남부연합의 대통령인 제퍼슨 데이비스의 동상을 철거하자 반대 측에서 이를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유적 파괴에 빗댔다.

30일 지역 신문인 휴스턴 크로니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의 주도인 오스틴에 있는 오스틴 텍사스 대학은 이날 오전 학생들의 환호 속에 본관 건물에 있던 데이비스의 동상을 전격 제거했다.

이는 지난 6월 남부연합기를 흔드는 등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한 청년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흑인 9명을 무참히 살해한 뒤 미국 전역을 강타한 남부기 퇴출 및 남부연합 문화·역사 청산 운동 중 하나다.

'남부연합 퇴역군인의 후예'(SCV)라는 단체가 동상 철거를 막아달라며 법에 호소했지만, 27일 주(州) 지방법원의 세러 크럼프 판사가 이를 기각하자 대학은 철거비 1만5천 달러를 들여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대학 측은 데이비스의 동상을 캠퍼스 내 미국 유적 센터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교수, 학생과 동상 철거를 놓고 머리를 맞댄 이 학교 다양성·공동체 분야의 그레고리 빈센트 부총장은 "상징적인 장면"이라면서 "지난 수년간 데이비스의 동상을 남부의 노예제와 흑백차별의 상징으로 본 사람들은 몇 차례 동상을 훼손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SCV를 대변하는 커크 리연스 변호사는 "소위 고등교육의 전당에서 역사와 전통을 지우려는 IS 스타일의 파괴가 자행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SCV 텍사스 지부와 함께 동상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텍사스 대학은 데이비스 동상과 함께 1933년부터 본관의 한 자리를 차지해 온 제28대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의 동상도 본관의 '전체적인 균형'을 이유로 철거했다.

역사학자들은 윌슨 전 대통령 역시 흑인을 악당으로, 백인 우월주의 집단인 쿠클럭스클랜(KKK)을 영웅으로 그린 영화 '국가의 탄생'을 백악관에서 보고 연방 기관 사무실, 화장실, 식당에서 흑백 분리 정책을 편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지적한다.

덴버시의회, 동성결혼 반대 '칙필레' 영업정지 추진

덴버 시의회 의원들이 덴버 시 국제공항에서 영업 중인 패스트푸드 체인인 칙필레(Chick-fil-A)에 대해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 지역 언론 덴버포스트에 따르면, 덴버 시의회 사업개발위원회는 덴버국제공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공항 측과 칙필레의 계약을 재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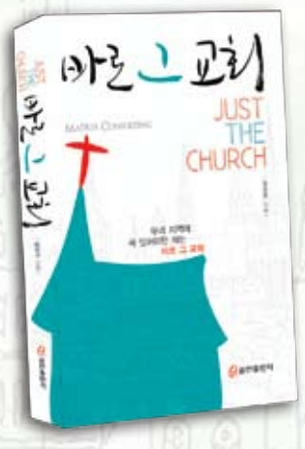
이 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다시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에서도 칙필레 측에 리스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시의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시의회에 의해 리스 계약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경우, 칙필레는 덴버국제공항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이 게이라고 공개한 덴버 시의회의 첫 게이 의원인 로빈 니치(Robin Kniech)는 칙필레가 차별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사용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칙필레는 주일에는 점포 문을 닫는 등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창립자인 트루엣 캐시(S. Truett Cathy)은 조지아 주 헤이프빌(Hapeville)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 한 1946년부터 주일에는 매장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2년 창립자의 아들이자 사장인 댄 캐시(Dan T. Cathy)는 TV쇼에 출연해 전통결혼을 지지하면서 동성결혼을 비판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가 비판과 보이콧 운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칙필레는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 미국인들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선정되는 등 품질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사람과 교회와 선교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필독서!



바로 그 교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세우기 목회 컨설팅!

김성진 지음 / 416면 / 15,000원

중소형 교회가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그 지역에 맞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소형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는 최상의 가이드북.

중소형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목회자에게 목회의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목회의 ABCDE를 강화하고, 전략적 사고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슬람 끌어안기

매우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무슬림 선교의 필독서!

조르주 후스니 지음 / 신동철 옮김 / 280면 / 12,000원

현재 미국 내 무슬림,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유학 온 이슬람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수십 년째 해온 베테랑 사역자가 최근에 펴낸 첫 번째 저서이다.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 20퍼센트는 아시아의 이슬람권 출신인 현실 속에 국내 무슬림 전도 사역에 영감과 도전을 줄 특별한 책이다.

목적을 찾아가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유인 되기!

안종필 지음 / 264면 / 12,500원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목적을 찾아가려면 필수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출발선에서 머뭇거리며 고민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한 두 번쯤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좌절한 이들, 또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찾아 줄 책이다.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 TEL : 747-1004(대)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3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순교의 피, 영적 거름이 되어 (2)

네로의 핍박은 신앙의 연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
순교자들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어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1951년에 제작된 '쿼바디스'라는 제목의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른다.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폭정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피신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로마를 향해 오시는 예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쿼바디스 도미네)라고 질문한다. 예수님은, "네가 성도를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려 한다!"고 답하셨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서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과 함께 순교하게 된다.

질문: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가 로마 황제들로부터 대대적인 핍박을 받도록 내버려두신 뜻이 무엇일까?

1) 교회 역사를 보면...

▪ 네로 -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

로마의 네로 황제(Nero, 37-68)는 누구보다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렸던 통치자, 그것도 세계를 호령하던 대로마제국의 황제로서 이루어놓은 그의 업적과 공헌으로 인하여 유명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잔인한 폭군'의 전형이다. 잔악무도한 만행과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그는 교회 역사의 관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초대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얻은 4세기 초까지 10명의 황제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박해는 대부분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로마인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로 보여졌다.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충성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욱이 향락과 사치를 즐기던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순결하고 절제된 삶이 마치 자신들을 향한 침묵의 항거라고 여겼다.

기독교 변증가들이 기독교의 입장을 정리하여 대항하였지만, 항상 역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네로의 박해는 다른 황제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는 어떤 이념이나 기독교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박해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권모술수였다.

68년 7월에 로마 시에 대형 화재가 있었다. 14구역 중에 10구역이 불에 탔다. 70% 정도가 소실된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로가 방화를 했다는 입소문이 퍼져나갔다. 민심이 흉흉하여 그의 왕위가 위태롭게 되었다.

이때 네로는 나름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다. 모든 화재의 문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술책을 생각해낸 것이다. 즉각적으로 그는 기독교인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 시작했다. 사실 네로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고 있었다. 자신을 16세에 황제로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하였다. 자신의 왕위를 넘본다고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아내 옥타비아와 형제를 포함한 친인척도 죽였다. 자신만의 정신의 세계에 갇혀서 살았음에 분명하다.

▪ 세속 역사가 타키투스

로마의 세속 역사가인 타키투스(Tacitus, 55-117)는 자신이 저술한 "연대기"에 네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네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호의를 지닌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글은 매우 신빙성을 지니고 있다. "여러 신들에게 값비싼 제사를 드리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로가 방화를 명령했다는 널리 알려진 소문을 없애려 하였지만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소문을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네로는 사람들이 혐오하던 그리스도인이란 자들에게 죄를 돌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였다. 이들이 추종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인물은 디베료의 재임기간 중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된 인물이다"(연대기, 15.44).

우리는 타키투스의 글에 통하여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다고 분명히 드러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고 위협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선택한 순교의 죽음을 네로는 자신의 오락으로 삼았다. "신앙인들 중 일부는 짐승으로 옷을 입혀 만들어 개들의 먹이가 되어 죽게 하였다. 다른 이들은 십자가 형틀에 죽게 하였으며, 다른 이들은 밤에 불을 밝히는 도구로 태워 죽였다"(연대기 15.44).

네로가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겠으나, 자신의행동이 자멸의 길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네로의 터무니없는 잔악한 행동을 보고 시민들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순교하는 자들을 가엽게 여기기도 하였다.

〈9면으로 계속〉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6)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은 결코 '애송이'가 아니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할 시기에 있었던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면 치를 떨었다.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쳐부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다른 민족은 다 정복했는데, 블레셋만큼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당시에 청동기 시대였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때 비로소 철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블레셋은 벌써 주전 1100년 경에 철기 문명권에 있었다. 거의 1000년 차이가 난다. 블레셋은 그렇게 강대한 민족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할 때(삼상 17장), 골리앗은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놋으로 만든 갑옷을 입었다.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강철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칼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강철로 만들어진 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방어용 무기는 다 놋으로 만들고, 그보다 중요하면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칼과 창은 쇠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에서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 다른 군인들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이 칼과 창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 사실이다.

사무엘상 13장 19-22절을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대장장이는 한 명도 없었다.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부여가 칼을 만든다는 정보를 입수한 한나라의 황제가 만일 앞으로도 칼을 계속 만들 시에는 한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한 것도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로 사용하는 곡괭이나 도끼. 낫 같은 것들을 벼릴 때도 블레셋에 내려가서 비싼 돈을 주고 벼려야 했다. 그랬으니 군인들도 칼이나 창이 없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 단 두 사람뿐이었다(삼상 13:22). 이스라엘 군인들은 몽둥이나 농기구나 물매 같은 것을 가지고 싸워야 했다(구약의 전쟁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칼과 칼이 쨍하고 맞부딪히며 싸우는 장면을 상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 시대 이전에는 그런 전쟁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철기 문화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다윗과 골리앗이 일대일로 싸우기로 했다. 그리고 지는 편이 무조건 상대방에게 항복을 하기로 했다. 이런 전쟁을 일기토(一騎討)라고 한다. 이런 관습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 '연개소문'에서도 고구려와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런 식으로 승패를 가르는 장면이 나온다.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면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이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 왕이 전쟁터에서 갑옷을 벗고 칼을 남에게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왕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옷과 칼을 가진 사람이 왕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벗어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어보더니 다 내려놓았다. 몸에 맞지 않아서? 아니다. 몸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사울이 다윗에게 입어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 골리앗은 구척장신인 데 반해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키가 작다거나 힘이 없는 아이는 아니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도 때려눕힌 힘센 '장사'였다. 그림이나 삽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였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워낙 골리앗이 키가 커서 다윗이 작아 보이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키가 작은 아이는 아니었다.

앞에서 사울 왕과 비슷한 체격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컸다(삼상9:2). 이렇게 사울은 기골은 장대한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사울 못지않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거나 '애송이'가 아니었다. 만일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애송이'였다면 사울이 그를 골리앗과 맞대결하도록 허락했겠는가?

이메일: jinhlee1004@yahoo.com

GGU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챤리더십박사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취득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 로부터 목사안수 (남,여) 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될수 있다.
3). 본교는 미국 미조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 $100 유 럽 $190
캐나다 .....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모라비안(Moravian)이라 불리는 사람들 (5)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한국프로그램 디렉터)

지난 호에서 언급한 30년 전쟁(신구교간 참혹한 종교전쟁) 이후 결성된 "형제단: Unitas Fratrum" 출신의 개혁주의 신앙인들도 진젠도르프 영지로 합류했다는 사실은 후일에 유럽의 개혁주의를 비롯해 유럽의 개신교 신학과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루터파를 비롯해서 카톨릭교도들, 형제교단(Brethern Church)을 비롯한 소수 지파의 개신교 교도들이 그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인종적 배경,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 한 공동체를 형성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태생적 약점 혹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우리의 관심이 쏠립니다.

진젠도르프를 지도자를 한 "주님의 파숫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두고 각 소규모 집단의 지도자들이 모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작심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집중적 기도(intense prayer)와 함께 말입니다. 기독교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없는 집단이 이상적인 집단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상적인 집단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 공동체 지도자들은 식사시간과 공동체 예배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중 거의 대부분 시간을 성경말씀을 탐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일 저들이 각 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앞세우고,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판단 기준만을 내세웠다면 모라비안 공동체는 그야말로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많은 날들이 지난 후, 드디어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경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자신들의 부르심(calling by God)은 하나라는 사실, 둘째,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Love and Sacrifice)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셋째,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는 사랑과 희생으로 연합(Unity)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하등 새로울 것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위해 300여 년전 저들 지도자들은 단순무지하게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기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연구한 끝에 얻어낸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곧 바로 실천에 옮겨 "주님의 파숫군"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갈등 속에서, 그들이라고 왜 우리처럼 말 잘하는 자기 사람들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할 줄 몰랐겠습니까? 논리 정연한 사람이라고 왜 그들 집단속에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장토론이나 인간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성경이 제시한 방법을 택했고 그것을 곧 바로 실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 모라비안들은 단순무지 할 정도로 성경의 원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John Wesley)를 비롯해서 저 콧대 높은 대영제국의 성공회 지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미국의 신생 교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고, 때로는 잔인했던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을 비롯해 북극의 에스키모와 남미의 원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뿌려놓았던 복음이 씨앗들은 4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아프리카와 카리브 해안 국가의 많은 지역에서 계속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교의 결실의 배후에는 진젠도르프라는 독일 백작의 창의적인 헌신과 지도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그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던 독일어 사용 신자들 중에서 토요일(Sabbath)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토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현재의 주 5일 근무제 정책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문학적 재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자그마치 400여곡에 이르는 복음적 찬송시를 작곡한 기독교 문인이기도 합니다. 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 그의 사랑과 헌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삶을 따르자는 내용의 찬송시들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찬송시도 아름답지만, 원어인 독일어 찬송시가 가진 의미는 더 깊고 숭고합니다. 그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독일 귀족가문 출신의 백작이면서 기독교 종교개혁가, 선교동원가,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 외교관, 영감에 넘치는 설교자, 기독교 문학가가 바로 진젠도르프입니다.

진젠도르프의 창의적 헌신과 지도력, 기독교 신학과 선교에 큰 열매
'주님의 파수군' 공동체 기도하며 성경원리에 충실함으로 갈등 해결

이메일: parkss@grace.edu

〈계속〉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참새 한 마리

여름 집중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차고 문을 열다가 드라이브 웨이에 무엇인가가 꼼지락 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다가가보니 아주 작은 아기 새 한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몇 년 전 아들 방 창문 위로 새가 집을 지었었는데 다시 집을 지은 모양이었다. 눈도 제대로 못 뜬 아기 새를 찾는 것인지 지붕 위에서는 새들이 짹짹거리며 난리가 났다. 저녁 먹고 빨리 쉬어야 다음 날 또 여덟 시간 강행군 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집에 들어와 있으려니 그 아기 새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어느새 아기를 찾던 새들의 울음도 그쳐 버렸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드라이브 웨이에 새가 떨어져 있으니 차를 다른 곳에 세우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길 잃은 아기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가 나와 있을거라고 알려주었다. 인터넷 사이트는 아기 새들이 땅에 떨어지면 죽을 확률이 높다는 정보와 함께 먹여야 할 음식, 임시 집을 만드는 법 등 급한 대로 도움이 되었다. 나뭇잎을 몇 장 꺾고 마른 가지를 좀 주워서 신발상자에 깔고 조그만 프라스틱 통으로 새 집 흉내를 내어 아늑하게 임시 집을 만들었다. 새를 데리러 나가보니 그 작은 몸을 굴리고 굴려서 잔디 위로 옮긴 채로 기진맥진한 채 뒤집어져 있다. 푸드득거리는 작은 새를 나뭇잎으로 살짝 들어서 신발상자로 옮겼다. 혹시라도 어미새가 와서 모이를 주고 돌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새집을 집 밖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지만 밤이 되는데 쥐가 와서 물어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어차피 새가 살아남기 어려울 텐데 마음 아파서 안보고 싶다고 하더니 그래도 물이라도 먹여보자는 내 제안에 어떻게 이 어린 새에게 물이나 모이를 먹일 수 있을지 연구가 시작되었다. 강아지 약 먹일 때 쓰던 드랍퍼를 사용해서 작은 좁쌀을 물과 섞어서 주었더니 입을 짝짝 벌리면서 몇번을 받아먹었다. 물이 들어가니까 기운이 나는지 작은 소리로 짹짹 울기도 했다. 벌레를 먹여야 하는데 밤에 어디서 벌레를 잡아 올 수도 없고, 인터넷을 보니 계란을 먹여도 된다고 해서 급하게 계란을 삶아서 노른자를 찍어 입에 넣어주고 난리를 하다 보니 잠 잘 시간도 지나버렸다. 어미 새가 품고 있었을 테니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아들의 말이 그럴 듯하게 들려서 히팅패드를 데워서 상자 밑에 깔아주고 차고에 넣어 놓았던 히터를 꺼내서 약하게 켜놓고는 "살아남아라"고 말해주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이 되어서 가보니 전날보다는 훨씬 기운이 있는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다. 살아 있어서 반갑고 고마왔다. 다시 물과 달걀을 좀 먹여서 밖에 나무 위에 내놓고 출근을 했다. 아들도 새가 걱정이 되었는지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에 잠간 들려서 모이를 주고 갔다고, 새가 잘 있다고 메기지가 왔다. 혼자 힘으로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돌봐주어야 할 것 같아서 집에 오는 길에 새장을 사러 애완동물 가게에 들렀다. 점원 말이 주변에 있는 야생동물센터에 전화해보고 빈자리가 있다고 하면 갔다주란다. 희귀한 새도 아니고 참새를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았지만 혹시 싶어서 아침 일찍 센터 연락처를 찾아 놓고 새집에 가보니 불쌍한 아기 새가 죽어 있었다.

그 전날 저녁까지도 모이를 잘 받아먹고 멀쩡했는데 아들이 상자 밑에 깔아준 히팅 패드가 너무 더웠던 것인지. 아들이 보면 마음 아플까봐 얼른 뒷뜰에 묻어주었다. 사실은 그러잖아도 바쁜데 새까지 돌보느라 더 마음이 쓰였고, 곧 집 떠나 몇 주간 여행계획도 있는데 아들이 혼자 바쁜 스케줄에 이 새를 어떻게 돌볼까 염려도 되었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 편으로는 그래도 하루 반 동안 아들과 나의 사랑을 다 받고 죽었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되었다. 아기 새를 묻고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메일: lpyun@apu.edu

〈5면에서 계속〉

그래서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자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것입니다(15절). '언약(berit)'이란 말 자체가 '자르다(cut off)'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만일 언약을 파기할 때는 죽음이란 결국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함으로 언약의 엄중성과 견고성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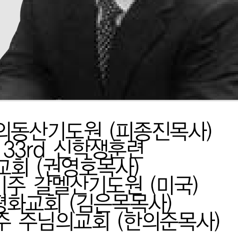
3) 마태복음 5장 31-32절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식주의에 의하여 왜곡된 해석에 대응하여 예수님 자신의 권위 있게 해석된 구약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대립시키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내와 관계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 이혼증서만 써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도 제 칠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내가 간음을 범한 경우가 아닌 한, 아내를 내보낸 남자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혼 당한 아내의 권리나 책임을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 남자의 죄와 책임을 묻는 본문입니다. 이혼을 당한 여인은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위로를 받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 여인이 재혼하면 간음을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도덕적 책임이 여인을 내보낸 전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혼당한 여인의 재혼이 간음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첫 번째 결혼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결혼관계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내보내는 것을 묵인했지만, 예수님은 도덕적인 죄임을 명백히 하여 금지시킴으로 이혼에 대한 금지 규정을 더 강화시키신 셈입니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투 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2015년 1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11일 ~ 13일 (합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16일 과천교회 (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 (소진우목사)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월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2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 (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 (배만석목사)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23일 ~ 25일 동춘교회 (윤석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3월
1일 ~ 3일 예수비전교회 (박창흥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9일 ~ 11일 (합동)태백시찰 연합성회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3일 ~ 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 (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4월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화평교회 (이재옥목사)

5월
1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7일 소망교회 (이정현목사)
18일 ~ 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 (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6월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8일 ~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5일 ~ 17일 온양감리교회 (노광현목사)
21일 예우림교회 (류병희목사)
22일 ~ 24일 (합동) 남수원노회 교사강습회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7월
6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9일 청운교회 (강대석목사)
20일 ~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천마산기도원 (옥광석목사)

8월
3일 ~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9일 ~ 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9월
6일 ~ 8일 청운교회 (강대석목사)
14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21일 ~ 23일 풍산교회 (박경순목사)

10월
4일 ~ 7일 성동중앙교회 (이인호목사)
11일 ~ 14일 일심교회 (김교문목사)
19일 ~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1월
1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8일 ~ 11일 성남성결교회 (이호연목사)
15일 대한교회 (윤영민목사)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2일 대한교회 (윤영민목사)
27일 ~ 29일 드림교회 (장순직목사)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30일 강서제일교회 (전종남목사)

12월
1일 ~ 2일 강서제일교회 (전종남목사)
7일 ~ 10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20일 GST 미션리서치 (캄보디아)
27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28일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2014년 1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 (김항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일 ~ 15일 우리들교회 (김호겸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2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 (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4일 정의교회 (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 (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 (이동효목사)
30일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4월
3일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 (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 (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5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 (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25일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 (오영택목사)

6월
9일 ~ 11일 명수대교회 (김강덕목사)
15일 주품교회 (최정용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 (한기형목사)

7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8일 ~ 25일 드림교회 (김여호수아목사)
27일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8월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 (피종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 (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4일 LA 평화교회 (김은목목사)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 (한의준목사)

9월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중앙교회 (이충일목사)
17일 양문교회 (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 (김형제목사)
24일 블레싱 센터교회 (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8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10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 (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9일 ~ 22일 증현교회 (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목사)
(마라클 블레싱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 (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 (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 (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연수원 강의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 (GST)

12월
1일 ~ 3일 영신교회 (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 (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밤 (GST)
31일 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미주 갈멜산기도원 매일 기도성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제 38회 중남미 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중남미노회 새 노회장 정용남 목사

KAPC 제38회 정기노회, 부노회장 김지문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제38회 중남미 정기노회가 30명의 목사와 6명의 장로 총대들이 모인가운데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칠레 북쪽 Maitencillo에 위치한 Hotel Marbella Resort에서 열렸다. 노회장 왕익상 목사(칠레 연합교회)의 사회로 드린 개회예배는 정정연 목사(아순시온교회)의 기도, 왕익상 목사의 설교("피난처 여호와")가 있은 후 정용남 목사(칠레 소망교회)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김영수 목사(브라질 사랑의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회무처리에서 새 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노회장 정용남 목사(칠레 소망교회) △부노회장 김지문 목사(아르헨티나 소망교회) △서기 정정연 목사(아순시온 교회) △회록서기 박성준 목사(벧엘성경연구원) △회계 심원석 장로(아르헨티나 충현교회).

임원 선출 후 각부 보고와 지 교회에서 올라온 청원건들을 다루고 신입회원 가입을 심의하며 이명해온 회원을 받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목사 고시를 치룬 김성환 전남기 목사안수식도 가졌다.

본 노회 기간 중, 노회원들은 매일 새벽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으며 각 시찰회 보고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내년 노회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으며 1일 관광도 하며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기사제공: KAPC중남미노회〉

2015CCM루키 오디션이 세리토스 페이스 센터 채플에서 열렸다. 사진은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는 모습

2015 CCM루키 대상 장슬기 자매

원하트M. 주최, 18팀 중 예선통과 8팀 공연

2015 CCM루키 오디션의 영예의 대상은 장슬기 자매(시온선교교회)에게 돌아갔다.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한 2015 CCM루키 오디션 본선대회가 8월 29일 오후 6시 30분 세리토스 페이스 센터 채플에서 열렸다. 지난 15일 18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예선전을 통과한 8팀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장슬기 자매는 "생각지 않게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찬양사역을 하는 뮤지션들을 위한 무대가 많지 않은데 CCM루키 대회에 참가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대회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찬양속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역에 더욱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피터박 목사는 "CCM루키가 올해로 3회째 맞이했다. 어렵게 대회를 준비했는데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 다행이고 좋은 분들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지난대회에 비해 이번 대회는 알차게 진행된 대회다. 앞으로 찬양사역자들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루키대회를 준비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섭리 목사(독립교회)는 "아무래도 CCM이라는 컨셉으로 대회를 하는 만큼 대중가수들을 발굴하는 오디션과는 차별화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CCM루키는 단순히 실력이 좋은 음악인들 외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사역자들을 발굴하는 대회다. 따라서 찬양사역자로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기획됐다"고 밝혔다.

이번 2015 CCM루키 대회는 지난 대회에 비해 청중들의 참여도는 낮았지만 참가자의 퀄리티는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회의 미래와 찬양사역의 미래를 위해 발굴된 이들 루키들을 교계에서 함께 온전한 찬양사역자로 키워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만큼 이들의 성장을 주목해본다.

△대상: 장슬기(시온선교교회) △금상: The foldhood(남가주주님의교회) △은상: 에스라(동양선교교회) △동상: 정명훈(남가주사랑의교회)

〈박준호 기자〉

미기총 최낙신 대표회장, 샬롯장로교회 방문

미주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왼쪽)가 샬롯장로교회를 방문, 후원 이사장 전기현 장로와 회계 나성균 목사(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미기총의 중점 사업인 각 지역 교협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미기총이 더욱 뿌리를 내리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사무총장격인 김영언 목사도 동석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미주 예비역 기독장병들 구국 평화 기도회에서 김회창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미주 예비역 기독장병들 구국평화기도회

LA 군사랑선교회(회장 김회창 목사)는 8월 29일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6층 채플실에서 구국평화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를 위해 열렸다. 부회장 차기학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회장 김회창 목사가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사 60:14-22)'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한국과 한국군을 도운 비밀스러운 지난 두 주간의 한반도 역사에 대해 설교했으며, 한국군과 한반도에 영광스러운 신앙으로 인한 축복의 회복이 넘칠 것을 강조했다.

〈기사제공: LA군사랑선교회〉

한인커뮤티니와 유대인커뮤니티의 공동의 발전과 협력을위해 모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인-유대인 커뮤니티 공동발전 협력 논의

이스라엘 총영사, KCCD 이사진 초청

한인커뮤니티와 유대인커뮤니티의 공동의 발전과 협력에 대해 논의가 지난 8월 24일 이스라엘 총영사관에서 실시됐다.

이스라엘 총영사 David Siegel은 KCCD 이사들과 2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총영사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Siegel 총영사는 한인커뮤니티와 유대인커뮤니티가 많은 유사한 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해 커뮤니티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특별히 남한과 이스라엘은 핵보유국(북한, 이란)에 둘러싸인 국가로써 국제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라고 전했다. 또한 이민사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훌륭한 전통을 잘 지켜나가며 더불어 미국사회 내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로인해 커뮤니티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리더를 양성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유대인커뮤니티는 한인커뮤니티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동의 프로젝트를 준비할 것이라 전했다.

Siegel 총영사는 이 자리를 통해 차세대 및 대학생들의 인재 양성에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이스라엘과 한인커뮤니티간의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과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준 KCCD 임혜빈 회장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KCCD〉

MOU를 체결한후 크리스천헤럴드 TV 정요한 사장과 한국 CBS-TV 한용일 사장이 기념촬영

크리스천헤럴드CHTV · 한국CBS-TV와 MOU

'새롭게 하소서' 등 컨텐츠 교환

크리스천헤럴드(발행인 양준호)는 지난 8월 12일 서울 목동 소재 CBS-TV(사장 한용일) 본사에서 MOU를 맺고 '새롭게 하소서' 등 컨텐츠를 교환해 복음을 전하는데 상호간 협의하기로 했다.

크리스천헤럴드 TV 정요한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 있는 방송국과 업무를 상호협의 하게 돼 정말 감사하다. 새롭게 출발하는 미주 크리스천헤럴드방송국이 미주 한인들의 좋은 소식을 한국에 전하고 '새롭게 하소서'를 비롯한 인기 프로그램을 미주 한인들도 시청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CBS는 1954년 최초 민영방송으로 출범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고신, 기장, 기감, 기성, 기침 등 11개 교단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엄혹한 군사독재시기에도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오직 정도언론(正道言論)을 걸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방송사다. 또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으로 한국교회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HTV는 9월 1일부터 시험방송을 통해 10월 1일부터 채널 11.88을 통해 7일 24시간 방송한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은혜로운 설교방송을 비롯해 영감 있는 찬양과 교계소식, 선교, 문화, 어린이, 기독교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CHTV는 11월 14일(토)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창립 38주년 기념예배 및 TV개국 축하콘서트를 피종진 목사, 변진섭 가수를 초청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사제공: 크리스천헤럴드〉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많은 시민들은 네로가 자신의 인간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로는 불명예스런 헬라 원정 후, 시민들의 폭동으로 인하여 32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운의 죽음을 죽게 되었다.

▪ 연단의 시간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고난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란과 핍박 중에는 내면의 신앙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내게 되어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들만 핍박과 순교를 잘 견딘 것이다.

그 당시 교회가 없던 상황에서 그들은 로마 시 외곽에 자리잡은 카타콤(Catacomb)에 모였다. 박해를 피하는 피난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지하 묘지였기 때문이다.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함께 모여 예배를 지속하고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좁은 공간에 거하면서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순교할 각오로 살아갔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도 네로에 대한 기록을 그의 "교회사"에 남겼다. 그는 네로를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였다. 그가 사도들을 죽인 것은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장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로에 의해 바울은 참수형에 처해졌고, 베드로도 역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로마 시에 있는 묘지에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교회사. 25.5).

네로는 강한 힘을 가졌던 자였다. 초대 교회의 기둥이었던 두 사도는 네로에 의해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 두 사람의 죽음만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프다. 주님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하며 봉사한 자들이 힘없이 떨어지는 가을 낙엽과 같은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두 사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확증받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세상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2) 성경이 보인다 - 디모데후서, 사도행전 27:24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했던 서신인 '디모데후서'에 바울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글을 통하여 네로의 박해를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갈등을 경험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바울 주위에 있던 많은 동역자들이 신앙을 버렸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났다(딤후 4:10-11). 함께 했던 자들이 자신을 버린 상황에서도, 바울은 비록 담대하게 순교의 죽음을 준비한다. 이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딤후4:17)고 선언한다. 신앙을 지키기로 한 자들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27:24에 하나님께서 네로 앞에 서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자.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네로)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기위해 용기가 필요한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사무엘 휴 마펫 선교사(한국이름 마삼락)의 이장예배가 카핀테리아 공동묘지에서 거행됐다.

고 마삼락 선교사 이장예배

부친 마포삼열 선교사 묘지로

사무엘 휴 마펫 선교사(한국이름 마삼락)의 이장예배가 8월 29일 오후 2시 카핀테리아 공동묘지에서 거행됐다. 올해 초 세상을 떠난 마삼락 선교사는 평양신학교를 세운 사무엘 마펫(한국이름 마포삼열) 선교사의 3남이다.

마 선교사의 유해는 그가 일하고 거주하던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서 부친이 잠든 캘리포니아의 카핀테리아로 옮겨졌다. 마 선교사의 프린스턴 동문인 폴 피어슨 박사(전 풀러신학원 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이장예배는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특송을 했으며 데이빗 헤켓 목사(비전시너지 네트워크 수석고문)가 기도를, 그리고 폴피어슨 목사가 설교(요14:1-4)했다.

이어진 성경봉독시간에는 정시우 목사가 시편 23편을, 서정운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총장)가 고전 15:20-26을,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교회 담임)가 롬8:35-39, 그리고 폴피어슨 목사가 계7:9-10, 21:1-4을 낭독했다.

이어 정순현 목사(유니버시티장로교회)가 감사기도 했으며, 로리 오스왈트 목사, 데이빗 헤켓 목사, 그리고 찰스 마펫(마삼락 선교사 조카) 성도가 하관식을 담당했다. 이날 이장예배는 정순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마 선교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연세대와 숭실대, 대한성서공회 이사 등을 지냈다. 한국을 떠난 후에는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했으며 지난 2월 9일 98세로 소천했다. 마 선교사의 동생 하워드 마펫 박사도 대구 동신병원 병원장을 맡아 선교 활동을 펼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미주크리스천신문

동부교계 게시판

east

패밀리터치 '가족 관계감정 훈련'

가정사역단체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가족 관계감정 훈련'이 9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8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 패밀리터치 뉴저지 본원 사무실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일인당 160달러. 1)내 마음이 아프구나! 2)아이 마음이 아프구나! 3)우리 가족 마음이 아프구나! 4)개인 독립 만세! 5)엄마, 이제 나를 놓아주세요 6)엄마, 내게 왜 그러셨어요? 7)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8)아! 이제 앞길이 보이는구나! 등 8가지 주제와 4번의 Reunion Sessions to Follow 등 총 12세션으로 진행된다.

▲문의: (201)242-4422

교역자 및 찬양대 지휘자 청빙

필라델피아 인근 알렌타운에 위치한 리하이벨리한인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할 교역자(CM, YM, EM 각각) 및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한다. 이력서를 이메일(ireneisaac2004@yahoo.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410)598-4330 이영준 목사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제11차 특별공개강좌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과 제11차 특별공개강좌가 미동부생명의전화 주관으로 9월 10일(목) 오후 7시30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35-56 159th St Flushing)에서 열린다. 기념식과 촛불(파란색) 명상(희생자, 유가족, 우리의 다짐)이 오후 8시(WHO제안으로 전 세계인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에 진행되며 Joyful 합창단(지휘: 최현옥 단장: 방은숙)이 공연한다. 강연은 △정인국 박사(소아과 전문의) "정신건강 돌보기는 유아기와 십대 때부터" △이수일 박사(Nyack대 상담대학원교수) "중독예방과 치유" △권오준 박사(Divine 힐링센터 원장, 심리학 박사) "심한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과 자타살 예방"가 맡는다.

▲문의: (718)213-8645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민족복음화대회 10월 16일-18일 강사 이태희 목사

민족복음화대회가 오는 10월 16일(금)부터 18일(주)까지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뉴욕대표회장 김승희 목사)는 지난 27일 오전 8시 매일잔치에서 열린 조찬 모임에서 본 대회에 관한 일정을 소개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뉴욕대표회장 김승희 목사가 이번 집회를 소개하고 있다.

뉴욕대표회장 김승희 목사는 마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오래 전에 뉴욕에서 시작했는데 지난 10년간 대회가 없었다"며 "이태희 목사님께서 작년에 집회를 하기 원하셨지만 지난해 본인이 뉴욕교협회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올해 할렐루야대회를 마치고 나서 10월로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승희 목사는 강사 이태희 목사는 한국의 '1세 부흥사 중 마지막 부흥사'라며, 이번 뉴욕집회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는 이태희 목사의 말을 전했다.

김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위원들이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뉴욕본부는 앞으로 대회까지 6주간에 걸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준비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조용기 목사가 대표고문, 이태희 목사가 총재로 있다.

뉴욕대표본부는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상임부회장 양승호 목사 △사무총장 김영환 목사 △서기 송일권 목사 △부서기 최현준 목사 △회계 전희수 목, △부회계 최요셉 목사가 맡았다.

이날 분과위원으로 시설/이은수 목사, 영접/임재홍 목사, 신학/김상태 목사, 원로/김홍석 목사, 홍보/이희선 목사, 봉사/정대영 목사, 차량/허윤준 목사와 협동총무 권캐더린 목사가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샬롯장로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교우들이 손을 들어 축하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씨존 스마트폰 강좌 개강

씨존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42기)과 중급반(43기)가 9월 10일(목)부터 3주간 일정으로, 뉴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ot Rd. #B-2 Flushing)에서 개강한다.

초급반 강의대상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완전초보자로서 스마트폰 활용에 미숙한 사람이다. 중급반은 기초반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또는 선교에 활용하기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강사 문석진 목사(씨존 대표)는 '스마트폰 쉽게 다루기!'의 강의 주제로 주요강의 내용은 전화, 메시지, 일정, 사진, 비디오, 이메일, 앱, 인터넷, 카톡, 페이스 북 등이다.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폰, 모토로라)위주로 강의하며 아이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후원한다.

△42기 초급반: 9월 10일(목)-9월 24일(목) 총 3회, 오후 2시-3시 20분(80분) △43기 중급반: 9월 10일(목)-9월 24일(목) 총 3회, 오후 3시 30분-4시 50분(80분). 신청마감은 9월 9일 오후 9시.

▲문의: (347)538-1587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복음으로...

샬롯장로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예배

샬롯 지역 첫 교회인 샬롯한인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설립 38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기념예배를 드렸다.

한인인구가 200여명인 지역에서 1977년 8월 28일 150여명이 참석해 첫 예배를 드린 감격을 교인들은 잊을 수가 없다고. 샬롯장로교회는 이후 복음전도 뿐 아니라 한인사회의 교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사명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초대 최태식 목사, 2대 송영성 목사, 3대 이희윤 목사, 임시 당회장 강준원 목사를 거쳐 2008년 부임한 나성균 목사가 현재 4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어려움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돼 대학교(Chun University)를 설립하고 Unity Classical Charter School을 개교하는 등 차세대 크리스천 지도자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 교회가 운영하는 이 학교들은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현재는 5학년까지 운영), 그리고 대학에서 학사 배출 등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투철한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함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페루선교보고 · 후원행사 등 일정보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8월 정기예배가 지난 27일 오전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지난 17일부터 한 주간에 걸친 페루 아동선교센터 방문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오태환 목사 인도로 기도 김홍석 목사, 말씀 전희수 목사, 합심기도, 축도 박이스라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출애굽기 3장 1-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비전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돼야한다"며 "이번 페루 선교지 방문을 하고 기아대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천하는 단체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모세는 젊은 시절 의협심으로 행동했을 때 도망자가 됐지만 80노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비전의 사람이 됐다"며 "내 교회 내 사역만 생각했었는데 기아대책을 만나 아동후원을 하면서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비전을 갖고 선한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어진 선교보고에서 전희수 목사는 페루 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첫날부터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아동방문을 하면서 '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다. 또 부모모임에서 한 부모가 '우리가 지금 헤어져 슬프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기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선교에 동참했던 회원들은 여독이 풀리지 않아 힘든 상태였지만 모두 선교현장의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동부기아대책기구는 이번 페루 선교에서 한 가정을 위한 사랑의 집(1채 재료비 1500달러)을 직접 짓기도 했다.

이번 페루선교 회계보고는 수입 19,830.79달러, 지출 19,647.90달러로 보고됐다.

전희수 회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9월 14일(월) 오후 6시 한국기아대책회장 뉴욕방문 모임 △11월 29일(주) 후원의 날 행사(장소: 뉴욕초대교회) △오병이어 원고모집 등의 광고가 있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www.eafh.org)는 2015년 8월 현재 북한 6명을 포함 총 119명을 후원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뮤지컬 "요셉" 관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총동문회(회장 허윤준 목사)와 재학생들이 지난 25일 뮤지컬 "요셉" 관람 여행을 했다.

필라델피아 있는 밀레니엄 극장의 성극 공연은 미주 뿐 아니라 미국 동부여행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수 관람지다.

이번 공연관람을 주선한 허윤준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가슴 뜨겁게 사는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347)502-2571, Fax.(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낮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패니쉬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인터콥 최바울 이단성 여전"

미주기독교이대연 이단대책세미나, 강사 한선희 목사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가 주최한 이단대책세미나가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8월 29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콥선교회와 최바울 씨에 대해 다뤘다.

한선희 목사는 "이미 인터콥에 대한 세미나는 지난번 세계기독언론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다룬바 있다. 하지만 지난번 세미나 이후부터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다루기 위해 세미나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주최 이단대책세미나에서 한선희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 목사는 "인터콥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전스쿨을 개최한 교회의 공통점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터콥이 건강한 선교단체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콥 사상은 베뢰아, 이원론, 신사도운동, 임박한 종말론 등이 얽혀있어 심각하게 비성경적이다. 문제는 이들의 주 타깃이 청년들이라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선희 목사는 "최바울 씨의 저서 '하나님의 사정'에는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며, 인간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도구로 창조됐다. 그리고 육체가 없는 영은 인간의 육체를 갖게 되며 예수가 오신 것은 사탄을 합법적으로 정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는 비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하러 마귀를 멸하러 오실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사탄을 합법적으로 정죄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그 합법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바울은 복음이 서진해 예루살렘까지 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는 성경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미주목회자를 위한 특별 성경세미나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가 주관하는 "미주 목회자를 위한 특별 성경세미나"가 오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계아가페선교교회(담임 김요한 목사 933 Lake St, LA)에서 실시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라흥채 목사(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하나님의 구원계획 저자). 무료이며 점심 제공. 선착순 100명.

▲문의: (310)404-6219 김영구 목사

이음카페 커피교실

이음카페(대표 김동일 목사 3020 Wilshire Bl, #100)에서는 커피교실을 12일(수) 오전 10시 실시한다. 강사는 이음카페 바리스타인 션박 목사. 참가비는 20달러.

▲문의: (213)507-6416

김창식 목사 출판기념회

김창식 목사(전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교수)의 저서 '한국교회와 한국전쟁' 출판기념회가 15일(토) 오전 11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170 Bimini Pl, LA)에서 열린다.

▲문의: (213)381-2202

나성영락교회 가을말씀잔치 2015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가을말씀잔치 2015'가 11일(금)부터 13일(주)까지 개최된다. '예기치 못한 기쁨'(시16:11)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말씀잔치의 강사는 박노철 목사(서울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1일 오후 7시, 12일 오전 6시, 오후 6시, 13일 주일예배, 오후 5시.

▲문의: (323)227-1400

2015 밀알의 밤

달라스밀알선교단(단장 이재근 목사) 주최 '2015 밀알의 밤'이 11일(금) 오후 7시30분 달라스영락장로교회(담임 명치호 목사 850 Lexington Dr, Piano, TX)에서 열린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밀알의 밤에는 가수 바다와 시각장애인 클라리넷연주자 장성규 씨가 출연한다.

▲문의: (469)432-7037

ANC온누리교회 장학생 모집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온누리 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미주 한인학생 및 선교사 자녀 등이며 신청서 및 지원서류는 홈페이지(www.anconnuri.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의: (818)834-7000

나눔합창단 주최 사랑나눔콘서트가 쎄리토스우리교회에서 열렸다

모아진 성금은 선교사 후원

나눔합창단 주최 사랑나눔콘서트

나눔합창단(지휘 서병호 장로)가 주최한 사랑나눔콘서트가 8월 30일 오후 7시30분 쎄리토스우리교회(담임 문상면 목사)에서 열렸다.

나눔합창단 단장이자 지휘자인 서병호 장로는 "나눔합창단은 토랜스, 다이아몬드바, 얼바인, LA다운타운에서 모였다. 많이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에 모인 성금은 선교사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는 "사랑나눔콘서트 감동이었다. 늘 듣는 찬양이지만 곡도 새롭고 준비도 많이 했고 화음도 좋고 하나님사랑의 감격이 있다. 그 감격 가지고 부르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찬양이다. 선교사 후원 목적 취지가 좋았다. 기쁜 마음 가지고 돌아가게 돼 감사하다"고 관람소감을 밝혔다.

박성규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콘서트는 '참좋으신 주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보다 더 날 사랑하는 이 없네' 등을 합창으로 불렀으며 여성중창팀이 '주님'을, 남성중창팀이 'I Love you Lord'를 불렀다. 그리고 조엔정 어린이와 플룻연주자 최진 자매, 바디워시퍼 김윤희 집사(주님세운교회)가 찬조 출연해 콘서트를 빛냈다.

이날 콘서트는 청중들과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후 문상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사랑의선교회주최 일일찻집 음악회에서 테너 오위영 목사가 찬양하고 있다

사랑의선교회 일일찻집 음악회

장애우와 소외이웃 식사제공 기금모금

사랑의선교회(대표 느헤미야공 선교사)는 장애우와 소외이웃 식사제공 기금모금을 위한 사랑의 일일찻집 음악회를 8월 30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음카페(대표 김동일 목사)에서 가졌다.

느헤미야공 선교사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헤이필드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 김용재), 테너 오위영 목사, 조이율동찬양단, 꿈이있는자유 정종원 목사(아이엠교회 담임) 등이 출연해 공연을 했으며, 차기학 목사, 김요한 목사, 유의철 배재코랄 지휘자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준호 기자〉

헤븐스밴드 공연이 마당몰광장에서 열렸다

헤븐스밴드 마당콘서트

케이팝스타 존추 특별출연

크리스천밴드 헤븐스밴드(리더 최천국 전도사)의 마당콘서트가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90년대와 2000년대에 널리 불려졌던 팝과 가요, 그리고 찬양곡들을 연주했다. 특별히 이날 케이팝스타 탑10 진출자 존추 형제가 특별출연해 콘서트를 빛내주었다.

헤븐스밴드는 리더이자 싱어인 최천국 전도사, 키보드 류자연 자매, 드럼 국중현 형제, 기타 조나단 심, 베이스기타 헨리심 형제가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렛어스교회 창립예배가 예성 미주총회 미국 서부지방회 주관으로 열렸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렛어스교회 8월 16일 설립예배

렛어스교회(Let Us Church, 담임 구본관 목사)는 지난 8월 16일 오후 4시 설립예배를 드렸다.

예성(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주총회 미국 서부지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이용남 목사(은혜세계선교교회 담임)의 사회로 오병익 목사(남가주 벧엘교회 담임)의 기도, 조성우 목사의 봉헌기도, 강양규 목사(지방회장, 남가주 새언약교회 담임)의 설교, 연제선 목사(LA 온하늘교회)의 격려사, 박용덕 목사(남가주 빛내리교회 담임)의 축사에 이어서 최한오 목사(나성성지교회 담임)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렛어스교회는 치노 지역에 미국교회(Latin American Free Methodist Church, 13050 2nd St, Chino)를 임대해 사용하며 예배는 매 주일 오후 2시와 금요일 오전 10시 성경공부 모임과 토요일 지역봉사가 오전 7시 30분에 있다.

렛어스교회 담임 구본관 목사는 성결대학교와 동대학원, CFNI in Dallas Texas, Azusa Pacific University(M.Div)를 졸업했으며 현재 Azusa Pacific University 목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문의: (972)561-0300

〈기사제공: 렛어스교회〉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213)380-0071, Cell.(213)215-8523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 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오후 1:00
일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l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청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뉴스&이슈-청년들, 교회를 떠난다

[미션라이프]청년들이 '교회에 지쳐서'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일반 청년들 사이의 '헬조선'(지옥 한국) 정서처럼 기독청년 사이에 '헬처치(Hell Church)' 정서가 번지는 것이다. 200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95년 기독교인 10-24세 중 약 60만명이 10년 새 교회를 떠났다. 한국갤럽은 올해 1월 보고서 '한국인의 종교'에서 20대 기독교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5% 포인트 낮은 18%라고 발표했다. 한 선교단체 간사는 "기독 학생들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비밀로 하다가 드러나면 화를 내기도 한다. 위기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n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등 모든 것을 포기)가 된 그들의 영적인 고갈, 사회적 곤란, 문화적 혼란에 교회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년들 삶의 문제에 응답하지 못하는 점" 큰 원인

20대 종교관심도 31%...교회가 희망과 재미, 기쁨 동시에 주길

교회가 힙(Hip), 합(合)하지 않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한 교단 신학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신학생 A(24)씨는 3년 동안 전도사로 일하다 지난해 말 사임했다. 그는 28일 "나도 모르게 점점 지쳐왔던 것 같다. 일정 기간 아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9개월째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도사가 되기 전부터 여느 '교회 오빠'처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왔던 청년이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공동체로서 역할보다 일을 할 청년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청년들의 '헌신'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어느 세대나 다 힘들었겠지만 지금 20대는 등록금 마련으로 힘겹고, 무자비한 취업의 경쟁에 지쳐 있다. 청년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다."

A씨처럼 자신을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 소모품처럼 느끼거나 공동체 내 갈등으로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년사역단체 청어람아카데미가 올해 4월 발표한 청년 사역자 설문조사에서 구성원이 공동체를 떠나게 된 요인에 대해 '공동체 내 갈등 혹은 실망'이라고 한 응답이 약 20%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각각 취업과 이사, 나이와 같은 불가피한 이유였다.

목회자의 딸인 B(27·프리랜서 작가)씨는 대학 입학 후부터 7년여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하는 신앙적 질문에 '믿음으로 아멘해라' '과학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독교의 맹목성도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구호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배타성도 부끄러웠다."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여러 계기들이다. 현재 20대인 청년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인터넷에서 양방향 소통을 하던 세대다. 권위적인 태도에 강한 반감을 갖는다. B씨는 "한마디로 교회가 청년들에게 힙(Hip·최신 유행을 따르는)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도 합(合)하지도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 같다. 나는 남자친구에게도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을 먼저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A씨도 비슷한 의견이다. "신학은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는데, 교회가 17-18세기 신학에 머물러 있다. 현실과 괴리가 크다." 청어람아카데미의 같은 설문조사에서도 신앙에 대한 회의(6.15%)로 공동체를 떠난 사례가 있다.

교회가 청년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교회는 항상 출석하지만 현 교회 양태에 대해 비판적인 모태신앙인 C(27·회사원)씨는 "일단 고3 입시 후 청년부에 정착하는 인원 자체가 극소수이다. 대학 입학 후엔 아르바이트 등으로 주일 교회 출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배 후 헐레벌떡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심정을 목사님들이 아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런 '88만원 세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예수님처럼 희망과 기쁨을 달라

20대는 신앙 여정에서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s)'이다. 미국 기독교리서치센터 바나그룹이 고령자 그룹인 90대를 대상으로 신앙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청년기인 20대에 신앙의 변화를 경험했다. 데이비드 키드먼 바나그룹 대표는 저서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서 "20대에 내린 교육, 직업, 결혼 등의 결정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며 "다음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를 떠난 20대를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회는 노력해야 한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20대에 집중하자. A씨는 "교회가 소규모 공동체를 이뤄 청년들을 격려해주면 좋겠다. 또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자기 갱신이 필요한 것 같다. 교리와 관습에 매어 있으면 청년들과 소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꾸릴 소망을 갖고 있다.

B씨는 올해 초 스스로 교회로 돌아왔다. "지난해 여름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내가 '자살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우습게도. 여러 신앙서적과 공부 모임을 통해 결국 새로운 '신앙의 눈'을 갖게 됐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예수 믿는 것이 힙(hip)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싶다"고 했다.

C씨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 대한성공회 교회 산하 소모임 '나무'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교회가 생계 곤란에 부딪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런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결국 예수님이 그 시대에 행한 것들을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고민해보면 좋은 선교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의 종교 관심도는 10년 전 45%였으나 2014년은 31%로 떨어졌다. 장근성 학원복음화협의회 총무는 "20대 청년의 삶 자체가 고달파지고 척박해지다보니 종교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현격히 낮아지고 있다"며 "명목상 기독교인은 선교적 운동성 감소와 기독교의 세속화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사역자들은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응답하지 못하는 점(41%)을 교회 청년부 감소의 '제1원인'으로 꼽았다. 사역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상담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적성(51%)이었지만 교회 프로그램에는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이 주를 이룬다. 진로나 전공 관련 모임은 미비하다.

한국 교회는 청년들의 삶과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B씨는 "교회의 경쟁자는 교회보다 재미있거나 그들에게 위안이 되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이라며 "가정 학교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수록 교회의 역할은 더 커진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희망과 재미, 기쁨을 동시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1년·1회 연임' 개정

법원, 홍재철 목사 등 12명 제명 등 징계 한시적 무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6-1차 임시총회를 갖고 대표회장 임기를 '2년·연임가능'에서 '1년·1회연임'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출석 184명 중 17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표회장 임기를 '1년·1회 연임'으로 축소한 것은 장기집권 논란을 막고 더 많은 이들에게 대표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한기총은 홍재철 목사가 18대 대표회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임기를 '2년·단임'에서 '2년·연임가능'으로 변경한 뒤 홍 목사가 19대 대표회장으로 취임케 해 분란이 일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홍 목사 등 징계를 받거나 한기총 출입이 금지됐던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기총은 지난 6월 16일 긴급임원회를 열어 '후원금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이라는 이유로 홍 목사의 한기총 공식회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에 대한 비난 기자회견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일부 공동회장 등 11명에 대해 자격정지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홍 목사 등은 같은 달 30일 법원에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26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정관에는 긴급 사안이 아닌 한 임원회 소집 시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해 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하루 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홍 목사 등이 신청한 이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등은 모두 기각했다.

이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해 불가피하게 긴급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 분들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홍 목사도 "이 대표회장의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거론했던 부분은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기감 감독회장 2년 전임제 가닥

장정개정위, 서부연회 폐지키로 · 성별·세대별 총대 구성안 부결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위원장 김충식 목사)는 최근 교단 본부에서 1분과 전체회의를 갖고 감독회장 제도와 명칭, 연회 및 지방회 통폐합 등의 개정안을 논의했다.

감독회장 제도는 2년 전임제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지난 번 전체회의에서 2년 전임제로 중지를 모았던 장개위는 2년 겸임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며 재투표를 진행했지만 전체 25명 가운데 2년 전임제 17명, 2년 겸임제 6명, 기권 2명으로 결국 2년 전임제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

연회장제도도 채택됐다. 장개위는 총회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연회감독은 연회장으로 호칭하기로 했다. 반면 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를 목표로 제안됐던 연회 및 지방회 통폐합 안은 부결됐다. 공청회에서 격렬하게 반대여론이 제기됐던 서부연회 폐지 안건은 찬성 13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폐지'로 결론냈다.

감리교 개혁을 위한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던 성별·세대별·직능별 총대 구성안은 찬성 4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전체 총대의 30%를 여성 총대로 의무 배정하고 50세 이후 총대와 이전 총대를 각 50% 비율로 배정하는 것이 골자였던 안이 부결되면서 장개위의 개혁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세습방지법안을 통과시키며 교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감리교가 교회세습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지 주목받았던 징검다리 세습방지안도 부결됐다.

장개위는 28일 2·3분과 전체회의를 갖고 은급법 경제법 선거법 재판법 관련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개위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입법의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다음달 몇 차례 전체회의를 더 갖기로 했다.

'제1회 국가기도운동 국제대회'

9월11일 순복음부천교회,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한국교회의 회개와 거룩 운동을 이끌 '제1회 국가기도운동 국제대회'(대회장 차군규 목사)가 오는 11일 오후 9시부터 12일 오전 4시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순복음부천교회에서 열린다.

국가기도운동본부(대표회장 조갑진 서울신대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나라를 고치소서'(대하 7:14)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기도운동 국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에서는 한스 피터 뉘에쉬 세계국가기도운동 회장과 박조준 세계지도력개발원장, 조갑진 교수 등이 메시지를 전한다. 레위지파 미니스트리와 지노하떼가스펠재즈찬양팀이 찬양과 경배 시간을 인도한다. 통일을 기원하는 특별 철야기도 성회도 7시간 이어진다.

대회는 세계기독교총연합회와 미주기독교총연합회,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쥬빌리코리아, 에스더기도운동, 서울신대, 한영신대, 성결대, 침례신학대, 아세아연합신학대 등 30여개 기관과 단체, 신학대가 후원한다.

국가기도운동은 뉘에쉬 회장이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했다. 1974년 한국에서 열린 '엑스플로 74 대회'에 참가한 그는 당시 김준곤 목사의 민족복음화 비전과 전략, 성시화운동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몇 차례 더 방한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성령운동을 배운 그는 95년부터 스위스 교회지도자와 함께 국가기도운동을 시작했다. '회개' '거룩' '연합' '섬김'을 슬로건으로 중보기도를 하며 1년에 한 번씩 한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국가기도운동은 현재 스위스를 비롯해 핀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 확산되면서 침체된 유럽교회의 회복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 중국 일본 북한과 히말라야 고산지대 주민과도 협력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조 교수가 지난해 5월 창립을 주도한 국가기도운동본부는 불우이웃 돌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중보기도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 또 24시간 기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기도 인도자 7000명을 확보해 기도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교회 대북교류 협력 활기 예상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인도적 지원부터 서둘러야"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군사적 긴장 해소와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대북 교류·협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회 통일·북한 전문가들은 교회가 앞장서 가뭄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회는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중요 프로젝트가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등 위축된 상태다. 이번 합의는 한국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복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수봉 기독교북한선교회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어 교류가 막혀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양영식 통일아카데미 원장은 "온 민족 구성원이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던 협상이 타결된 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남북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양 원장은 특히 북한 선교의 간접적 교두보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은 점을 높게 평가했다. 양 원장은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 멈추지 않은 데에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면서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대화하며 마음을 주고받다 보면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협력 기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 원장은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교회가 나서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일환 기독교통일학회 회장은 북한이 하루빨리 개방을 해 국제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회장은 "북한이 남한,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교회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으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뒤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개신교계와 함께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고 재정 지원을 해야 이번 합의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대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연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 소장인 박영환 서울신학대 교수는 "한국교회는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각개전투식 지원은 지양하고 역량을 집결해 북한과의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북한 교회 재건'을 중장기 목표로 세우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허 선임연구원은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대북 지원과 동시에 통일 이후 북한교회를 회복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계의 보수·진보 통일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 입장만 강조한 중 · 고 교과서

"성적 소수자 취업 등 차별" 동성애자 논리 그대로 기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이 명시돼 있었지만 이후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최근 출시된 교과서에는 동성애자들을 적극 두둔하는 내용까지 수록돼 있었다. 국민일보가 2회에 걸쳐 동성애에 우호적인 중·고교 교과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 글은 다음과 같다.

(상) 교과서에 기재된 동성애 서술

◇ 과거 교과서는 동성애자-에이즈의 연관성 명시=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과서에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에이즈의 정의, 감염 경로, 성병 예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었다.

교육부가 발행한 '교련'(2000년) 교과서는 "에이즈 감염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 동성연애자, 무분별한 이성 간의 성 행위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오염된 주사를 맞은 사람,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체에서 태어난 태아에게서 발견된다"고 서술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분명히 했다.

대한교과서에서 펴낸 '보건'(2001년) 교과서도 "1981년 미국에서 타리니성 폐렴에 걸린 남성 동성애자의 보고에서 시작되어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에 의한 것이 밝혀지고, 그 병원균은 HIV 바이러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을 에이즈 바이러스(HIV)라 부른다"고 적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성과 행복'(1998년) 교과서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문란한 성행위를 삼가고, 동성연애자, 약물 남용자, 매춘 행위자 등과의 관계를 피해야 하며, 깊은 입맞춤도 위험하다"고 설명하는 등 동성애에 따른 에이즈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 최근엔 연관성 삭제, 동성애자들의 논리만 부각=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기술하는 대목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동성애자들을 '성적 소수자'로 지칭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교과서는 비상교육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2014년) 교과서다. 비상교육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성적 소수자를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동성애자들이 펼치는 차별논리를 그대로 옮겨 놨다.

교학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2015년) 교과서도 "성적 소수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 성적 소수자가 커밍아웃을 하면 주변의 친지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할 수 있고, 능력이나 성품에 관계없이 취직하기 어렵거나 실직할 수 있다. (중략) 성적 소수자는 사회 제도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는다"며 동성애자들의 소수자 논리를 주로 소개했다.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2014년) 교과서는 "이들(동성애자)의 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성적 활동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한다면 이들의 성을 배척하고 금기시할 도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는 논리를 폈다. 와이비엠도 중학교 '보건'(2015년) 교과서에서 "조선시대에는 성적 소수자를 엄한 형벌로 다스린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 속에 성적 소수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 다음세대, 동성애 옹호 교과서로 교육받아=미래 주역인 다음세대가 동성애 옹호 교과서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국교회와 학부모들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동성애 확산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선교의 창 (38)

마닐라 선언(The Manila Manifesto)에 강조된 선교내용

송종록 목사 | (대학선교, 수필가)

마닐라 선언이란 무엇인가? '선언'이란 신념과 의도와 동기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닐라 선언은 1974년 로잔대회의 정신을 계승한 제 2차 세계복음화국제대회의 결과물이다. 본 대회는 1989년 7월에 약 170개국에서 3,000여 명의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필리핀의 마닐라에 모였다. 금번 대회는 두 개의 주제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와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에 기초하여 선언문이 작성되었다. 전반부는 21개 항목의 신앙적 고백(affirmations)으로 구성되었으며 후반부는 12항목으로 주제를 설명했다.

이 선언문의 주된 결론은 선교의 시급성 강조와 이 선언을 로잔언약과 함께 연구하며 실천에 옮기기를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기존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선교방식에 대한 반성과 타 종교에 대한 자유보장을 촉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닐라 선언에 나타난 선교적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세상의 변화와 선교적 도전

1900년에는 세계 인구의 9퍼센트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에는 50퍼센트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주'라고 불려 왔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 선교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도시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민족이 우리의 문턱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민족의 장벽을 허무는 우주적 교회들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과학 기술과 함께 산업화되어 가며 경제 질서의 변화와 함께 도시화되어 가는 새로운 세계 문화의 출현이라는 '현대성'(modernity)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되어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게 한다. 더욱이 세속주의는 신앙을 황폐하게 해서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사실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도시화는 사람들의 삶을 비인간화하였으며 대중매체는 말을 영상으로 대체해 진리와 권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현대화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애써 전하는 메시지를 왜곡시키며 또 선교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해친다.

현대화는 위험과 함께 축복을 가져오기도 한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과 교역망을 통해 전통적 사회든지 전체주의적 사회든지 현대화는 복음이 미개척지 경계를 넘어 그 닫힌 사회 속에 파고들어 갈 수 있는 전대미문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선교적 측면에서 본 네 부류 사람

첫째로, 잠재적인 선교역군으로 헌신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1900년에는 4천만이었는데 오늘날에는 5억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어떤 주요한 종교 그룹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둘째로,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도 가끔 참석하며,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헌신이란 개념은 생소하기만 하다. 우리는 이들을 시급히 재 복음화해야 한다.

셋째로, 비복음화된(unevangelized)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에 응답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의 거리, 길, 마을, 촌락에 가면 만나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넷째로, 미복음화 된(unrached)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20억이나 되는데 이들은 자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지 않다. 사실 약 2,000여 민족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활발한 토착적인 교회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민족'이란, 서로 유사성, 예를 들면 공통된 문화, 언어, 가정, 직업을 가진 종족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략적 선교사 재배치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그리고 나머지 40억 중 절반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었으며 그 나머지 반은 듣지도 못하고 있다. 1989년도 기준 통계에 의하면 2,000여 개의 큰 민족들 속에 그와 같은 약 12,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으며 그들을 전도한다는 과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선교사의 겨우 7퍼센트만이 이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나머지 93퍼센트는 세계의 절반이 되는 지역 곧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려면 선교 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힘 있게 일어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

'협력'이란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기질, 은사 그리고 문화,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 성경에는 전도와 연합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믿도록(요17:20-21) 하기 위해 자신이 성부와 하나 됨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또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며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빌1:27)라고 했다. 이런 성서적 비전과는 달리 우리는 서로 의심하고 대결하며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고집을 부리고 권력 투쟁과 자기 왕국 건설에 힘씀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부패시키고 있음을 부끄럽게 여긴다.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확인한다. 이는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화해의 복음이 우리의 분열로 인해 불신을 받기 때문이다. 세계 복음화 과제가 기필코 성취되려면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협력해야만 한다.

맺음 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 이는 로잔 2차 대회격인 마닐라 대회의 주제이다. 본 대회는 예수께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이 땅에 오셨고 언제가 그 분의 약속대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희생과 연합으로 선교적 사명을 긴박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다.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이 발표된 15년 후 그 정신을 계승한 마닐라 선언(The Manila Manifesto)이 다시 나왔다. 왜 비슷한 선언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는 교회가 선지적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의 중요한 원리보다 내부 지향적 개 교회 중심 활동에 집착해 있다.

교회가 전통의 관성과 중력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세류를 돌파하기 어렵다. 반복은 강조이며 다급한 촉구이다. 세계 미완성 과업을 향한 주님의 엄한 명령을 우리는 한시도 경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 그리고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본 대회의 결산이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21세기는 지구촌이 하나의 선교지로 변하고 있다.
선교지는 바다 건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문밖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목요기도운동

1. 이슬람권의 성도들, 선교사들, 복음전도자들을 위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16:18-19).

-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기도로 그 땅의 어둠의 권세가 묶이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소서!

- 박해가 일상화된 이슬람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이기게 하소서!

- 시리아와 이라크,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납치되어 고통을 겪는 성도들과 이란의 감옥에 갇힌 성도들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영,육을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내 주소서!

- 요르단과 레바논, 터키 등에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추수 때가 지나가기 전에 더 많은 일군들을 보내 주소서.

-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다양한 길과 방법으로 이슬람권 선교의 문을 열어 주소서.

2. 무슬림들, 이슬람지도자들, 국가들을 위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한10:10-11).

- 생명의 주인이시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멸망당할 죄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 생명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이슬람권의 상황을 인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 극단주의 이슬람무장단체 IS와 보코하람 등이 지난달에도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납치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저들의 만행이 그치게 하여 주소서! 배후에 역사하는 살인과 어둠의 세력이 묶이게 하소서!

- 지도자가 교체된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더 거센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해체되게 하소서.

-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IS의 잔혹교육이 그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뇌하여 살인 무기로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을 파하여 주소서.

- 종교를 빙자한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과 학대가 그치게 하여 주소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참정권이 허가된 것을 감사하며, 실효있게 하소서.

-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과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전쟁 지역에서 무고한 피흘림이 그치게 하시고, 난민들이 보호받게 하시며, 가난해진 주민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극단주의 이슬람무장단체의 최고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시며, 16억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얻게 하소서! : IS의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 보코하람의 아부바카르 셰카우, 알카에다의 아이만 알 자와히리, 탈레반의 무하마드 만수르, 하마스의 칼리드 마샤알, 알샤바브의 아마드 우마르가 변화되게 하소서

3. 이슬람화 저지와 중보기도운동 위해

(시72:1)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갈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위정자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소서! 정부가 주도하는 할랄식품과 무슬림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들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해가 된다는 것을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계의 지도자들과 언론매체가 이슬람의 속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진실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 위정자들이 다문화 사회가 된 유럽과 미국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게 하소서. 지혜롭고 합당한 다문화 정책으로 건강하고 견실한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운동이 전국과 세계로 퍼져가게 하소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예닮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DKoreanchurch.com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ㄴ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5)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담임)

39권 구약의 결론은 "메시아가 오신다"...다니엘서가 결론
신약은 총27권 구조는 마태복음-사도행전 역사서와 서신서

3) 분열왕국

솔로몬왕이 죽은 후에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뉜다. 르호보암은 유다왕국을 이루고

(베냐민지파와 유다지파)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열 지파가 나라를 세웠다.

(1)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열두지파 중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여 세운 나라이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다. 소선지자들인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보내어 회개를 외쳤으나 그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BC722년 앗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였다. 그 후 BC 663년 앗수르의 수도에 나훔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라 외쳤지만 그때도 그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BC 631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 당하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덧붙이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앗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결혼(통혼)시켜 민족 말살정책을 수행하므로 그 결과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되고,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인과 사마리아인 간에는 악연이 계속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소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강요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은 회개치 않으므로(이방신을 섬김) 위에서 말했듯이 BC 631년에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였다.

(2) 남유다

남유다는 열두지파 중 두 지파인 베냐민지파와 유다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하여 세운 나라이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으나 생활이 부유해지면서 서서히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므로 소선지자 오바댜, 요엘, 미가,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대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라 외쳤지만 회개하는 자들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이방인 나라 바벨론을 통해 BC 605년에 1차로 다니엘과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다음 BC 598년에 2차 포로로 잡아갔으며, 3차 포로인 BC 586년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었고,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로만 형성되었다. 남유다 역시 부유하여지므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요엘, 미가, 스바냐, 하박국 등의 소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으며,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자들도 보내어 회개하라 하였다. 만일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70년간 바벨론을 섬기리라고 예언하셨다(렘25:11-12).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반듯이 70년 후에는 회복(사45:1-7) 시키신다고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징계하기 시작한다. BC 605년에 다니엘 대선지자와 세 친구(사드락, 메삭, 아벧느고)들과 그 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BC 597년에 제2차로 포로들을, BC 586년에는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3차로 포로들을 잡아갔다. 그 후 70년이 찬 후에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BC 539년에 바사제국 고레스왕의 칙령으로 포로들을 귀환시키었고, 이스라엘인들은 성을 중건하기 위한 시작은 했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이루지 못했다. 그리하여 2차 포로 귀환 시 에스라를 지도자로 스가랴 선지자가 귀환을, BC 458년에 귀환하게 되고, 고레스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인들이 성중건 칙령이 나오므로 BC 457년부터 성중건을 하게 된다.

BC 445년에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말라기 소선지와 같이 3차 귀환하여 성벽을 완전히 증건하게 된다(느12:27).

4) 시가서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다. 욥기는 창세기 연대와 같으며, 시편에는 다윗의 시(사무엘상, 역대상, 하)가 속해 있으며, 아가서, 전도서, 잠언은 솔로몬왕의 시와 교훈이 속해 있으며(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그 내용들은 성경과 같다.

5) 구약의중간기

BC 331년부터 BC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선지자)을 보내지 않으셨다. 331년간 침묵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단9:25; 사7:14; 미5:2)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셨다.

(1) 헬라제국 등장: BC 331-67년 헬라제국을 통해 언어를 통일시켰다.

(2) 유대인의 자치정부

BC 167-67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치정부 수립: 포로생활을 통해 메시아를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3) 로마제국

BC 67-AD 500년, 로마가 넓은 지역을 점령: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 도로를 로마로 향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메시야가 오시면 복음이 빨리 전파되게 하기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6) 결론

구약은 39권으로 되어있으며, 구약의 결론은 메시야가 오신다는 말씀들이요 다니엘서가 구약의 결론이 된다.

신약(New Testament)

1) 신약의 구조

신약은 총 27권으로 되어있다.

신약은 총 27권으로 되어있다. 신약의 구조를 잘 모르고 읽으면 복잡하게 여겨진다.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이 끝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총 성경의 결론 부분으로 끝이다.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신약의 끝이다. 그 외에는 모두 서신서이다. 또한 사도행전 시대는 최고의 영적 전쟁터이다. 주님은 이때 바울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을 통해 영적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곳을 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신약은 총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조는 역사서, 목회서신, 바울서신, 일반서신으로 되어있다.

복음은 좋은 소식(Gospel), 또는 기쁜 소식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선포했던 기쁜 소식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롬1:1; 살전2:2, 9) 그리스도의 복음(막1:1; 롬1:16; 15:9),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행20:24), 평안의 복음(엡6:15), 구원의 복음(엡1:13), 영광의 복음(고후4:4) 등등으로 불려왔으나 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관복음(함께하는 의미)또는 사복음서라고 한다. 사복음서의 "마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는 종으로 오신예수님을,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성령의 나타나심)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① 역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②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③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④ 일반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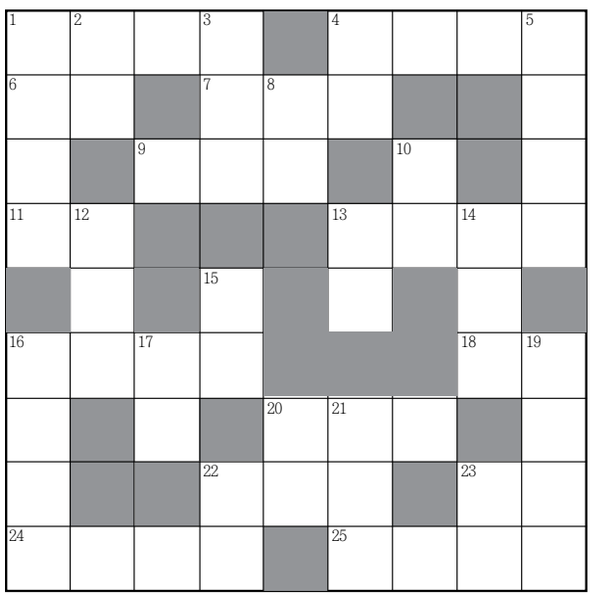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메일: Gpscenter@gmail.com

〈다음호에 계속〉

십자말 • Cross Word (96)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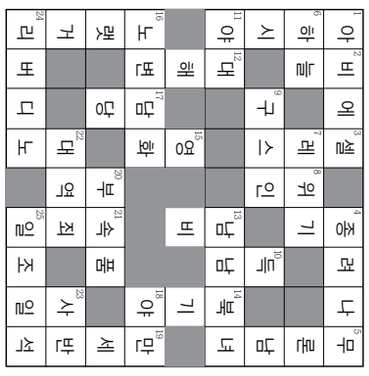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사사 기드온의 부친의 거주지이다(삿6:11).
4. 야자과의 상록교목(겔41:18).
6. 천(天)(시148:4).
7. 구약의 세 번째 책.
9. 현대식으로 에디오피아 사람(렘38:7).
11. 갈렙의 자손이며 레겜의 아버지(대상2:47).
13. 우리나라에서 남쪽지방은 남자가 잘나고, 북쪽지방은 여자가 아름답다는 속설.
16. 화롯가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고사성어).
18. 지능이 미개하여 문화가 유치한 상태(고전14:11).
20. 주되는 일이나 물건에 딸려 붙은 것(민1:50).
22. 궁궐을 범하여 임금과 나라에 큰 죄가 되는 짓(상식).
23. 아살리야의 아들이요, 요시야의 서기관이다(왕하22:3).
24.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당의 집회소이다. 자유인이란 뜻(행6:9).
25. 하루아침과 하룻저녁과 같은 짧은 시일(고사성어).

<세로 푸는 열쇠>

1. 이스라엘 아합왕의 뒤를 이은 제8대 왕(대하22:3).
2. 물고기의 피부를 덮고 있는 얇은 딱지로 된 보호조직(겔29:4).
3. 헬렘의 아들(대상7:35).
4. 커다란 부스럼(계16:11).
5. 남자나 여자나 말할 것 없이(에4:11).
8. 사람의 됨됨이(잠23:7).
10. 아들을 얻음(창35:17).
12. 큰 바닷가(수9:1).
13. 부엌에서 가장 잘 쓰이는 금속제 부엌기구(미3:3).
14. 레위인 헤만의 아들(대상25:4).
15. 귀하게 되어서 몸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름이 빛남(요17:5).
16. 노래가 될만한 재료가 되는 것(애3:14).
17. 어떤 일을 맡음(출18:22).
19. ○○○○ 열리니 내가 들어 갑니다(찬송가).
20.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 지우는 노역(느5:18).
21.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레23:28).
22. 몹시 화를 냄(렘21:5).
23. 성읍 이름(왕하8:21).

십자말 정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강사: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DYNAMICS 다이나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로고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2. 사모의 침실 가꾸기(4)

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실력 필요
항상 배우자를 생각하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면 평생 즐겁게 살아

목회자의 침실 가꾸기의 몫은 사모들에게 있습니다. 남편을 잘 보살피지 않는데서 오는 불상사들이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마귀가 바로 음란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여우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여론을 조사해보면 기도와 철야하는 사모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호소를 들어 보면 '우리 아내는 제빌 기도를 좀 절제하면 좋겠어요. 허구 헌날 철야니 금식이니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제 옆에서 잠자는 아내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호소해옵니다. 사모들은 이런 남편의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좀 열성분자에 속한 사모들은 '목사가 왜 그렇게 성을 밝히시나, 설교준비하고 기도해야지 짐승처럼 매일 그런 것만 요구해오고 그러니 목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라고 나무라기라도 하면 소심한 목회자들은 의외로 움츠려들며 아내에게 접근도 못하다가 젊은 집사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조절할 수 없는 육정으로 그만 불상사가 일어나고 마는 것이지요. 혹은 남편을 너무 믿어서 '아, 우리 그이는 그런데는 눈이 어두워 아무 염려 없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후 상담실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모들은 남편을 너무 믿어서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형사처럼 보초를 서거나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졸졸 따라 다니거나 뒷조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단지 남편을 충실하게 즐겁게 해주는 여우가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목회자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 주면 교회 안에 모든 부부들이 닮게 됩니다.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목회자부부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음란마귀가 들어 왔다가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도망가게 되지요. 사모가 지혜롭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연출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여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 특별한 가정 세미나가 필요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우가 되라는 의미에는 반드시 기교나 테크닉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부부 각 사람의 체질에 따라 성에 관한 조건은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행위 자체에 관심이 가게 되며 동시에 회수나 오르가즘의 정도에 따라 행복과 즐거움이 비례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부부들의 사정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남녀의 건강상태 및 조건 신체 발달 모두에 따라 다양합니다. 어느 기준과 표준은 세워 놓고 학습과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성행위를 전혀 할 수도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받아온 성교육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부도 있는가 하면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성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우가 되라는 의미는 이런 모든 상황 전반부에 걸쳐서 대응하는 실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용어로는 잠언 31장에 설명하는 현명한 아내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 나가는 실력이 여성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느 사모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남편이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이에 비해 성기능이 떨어지고 의욕조차 없어서 고민입니다. 성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던 저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강한 성충동으로 인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심할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남편이 보기 싫어지면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선교지의 열악한 조건과 환경이 저를 더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다가 성욕까지 채워지지 않는 저의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하는 일들이 모두 미워지고 참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부부세미나에 참석하여 개선해보자고 의의를 제기하면 남편은 펄펄 뛰면서 거절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딱한 상황입니다. 무어라고 답변을 해줄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혼자서 안간힘을 쓰며 선교지에서 견디어 오는 사모가 불쌍해지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당뇨란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체적인 악조건은 심리적인 문제까지 커져가고 맙니다. 아내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남편의 좌절감은 심한 폭행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생활을 대신할 수 있는 문화행위가 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성욕은 다른 욕구와 달라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욕망은 반드시 그 행위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지만 성욕은 다른 행위로도 대신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재치가 필요합니다. 예술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과 함께 즐기기 때문입니다. 문화생활 중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영성생활로 대치할 때 보다 고상하고 차원 높은 부부의 성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기능도 성욕도 내리막길이 되어갈 때도 부부는 함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을 때 정신적 결합내지는 영적인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존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존경도는 실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남편들이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거나 퇴직을 하여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혹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녀들에게 얹혀 살기라도 하게 되면 스스로 자격지심에 서글퍼지며 아내로부터 푸대접은 물론이지만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됩니다.

젊은 날 열심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부부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됨이란 사랑의 극치를 말해줍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리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내 마음은 항상 배우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변화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서 배우자를 알아야 하고 나의 언어와 생각내지는 감정들을 그에게 맞추기 위해 내려가야 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존경하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뒤로 하고 맞추어 나갈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는 나이 들어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단어도 잊어버려서 자꾸 찾아 헤맬 때에도 상대방에게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필요를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보, 거시기 갖고 와요"라고 부탁을 하면 아내는 특별히 물어볼 필요 없이 남편의 소지품 중에 필요한 것을 잽싸게 갖다주면서 "여보 거시기 여기 있어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는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의 생활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30년, 40년, 50년 되어갈 때 부부애는 보석같이 빛나 기능은 날로 떨어져가도 하나됨의 행복은 날로 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부부관계의 중요성(벧전3:1-7)찬245장

새 언약백성의 열매는 먼저 가정의 기본단위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남편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7).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 남편을 통해 나타나려면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 표준을 변치 않고 지식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아내의 연약을 알아 그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아내의 복종으로 나타납니다(1, 5-6). 비록 안 믿는 남편을 두었다 할지라도 그의 선행의 본을 보여 주께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능은 그리스도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행16:31). 주님은 가정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날처럼 가정의 기본이 제도적으로 무너진 때에 구속 위에 가정을 세워야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화 복의 근원으로의 삶(벧전3:8-12)찬28장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첫째, 긍휼히 여겨야합니다(8). 먼저 형제끼리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약한 자를 용납함으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곤고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인색한 마음을 극복하려면 이것이 강조돼야합니다. 둘째, 악인에게 복을 비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9). 나아가 세상의 악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심판 받을 세상 속에 살지만 완성의 그 날까지 복을 비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은 혹시 그들 속에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셋째, 주께 인정을 받기까지 선을 따라야 합니다(10-12). 무엇보다 개인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 말을 조심하고 선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이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합니다.

수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라(벧전3:13-17)찬474장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는 의를 위한 고난당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첫째, 주권 인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15).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그의 주재권을 갖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기에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둘째,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16). 주재권이 확인된 후 선한 양심의 상태를 살펴야 겸손과 존중심이 생깁니다. 셋째, 의를 위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14). 잘못해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 하지만 억울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임으로 원수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인내해야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진정 복됩니다.

목 세례의 의미(벧전3:18-21)찬85장

홍수심판에서 방주 안에 구원받은 노아식구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는 참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의 실체를 설명한 세례에 관한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의 표입니다(18-19).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완벽한 공로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갖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사는 자가 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이것이 바로 성령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육체의 더러움을 제한 것이 아닙니다(21). 세례란 씻는 의미를 갖는데 죄로 인한 영혼의 더러워짐을 씻는 죄사함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기만하면 그 세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확증입니다. 성령세례 받은 성도의 확신에서 살아갑시다.

금 하나님을 위한 삶(벧전4:1-6)찬27장

사도는 계속 나그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또 세 가지를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지해야 합니다(1). 그리스도의 고난이 공로지만 그리스도인 삶의 본도 됩니다. 그것을 갑옷으로 삼으라하심은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것처럼 살겠다는 목표와 방법으로 살아갈 때 기이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둘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합니다(3). 사람의 정욕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져 극한 방탕에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속에 있는 육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합니다. 이것은 옛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던 것이 의로움과 긍휼과 신실함의 열매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합니다.

토 종말시대의 지혜(벧전4:7-11)찬375장

만물의 마지막을 의식하는 사도의 때는 우리가 사는 종말시대를 지칭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에 관한 사도의 지혜를 들어보면 첫째, 근신해야합니다. 근신이란 깨어있는 생활 곧 절제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생활에서 나옵니다. 둘째, 뜨겁게 사랑해야합니다. 종말의 고통 하는 때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모든 악한 사상 즉,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달려가기 쉬운 때에 뜨거운 사랑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이웃에게 더 뜨거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셋째,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합니다. 종말은 우리로 아무렇게나 대충 살게 하려는 유혹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인께 맡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야합니다. 주인이 당분간 맡긴 일을 잘해 착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상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피종진 2015년도 목사 국내 · 외 성회 일정

"말씀의 은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축복"

2015년도에 국내외에서 피종진 목사를 초청하여 각 부흥성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신 교회와 각 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P : 010-5255-7777

-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목회대학원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미국 Philadelphia Faith대학원(D. Min)
- 미국 Henderson C. 대학교(Th. D)
- 미국 Henderson C. 대학교 부총장
- 미국 Boston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원장
- 한영신학대학교 운영이사장
-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 (재)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예장 해외합동총회 총회장

1월

1(목) 오후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2(금) 오후 경기도 광주교회(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4(주일) 오후 광명 대한교회(조주원 목사) ☎(02)2617-7009
5(월)~ 7(수) 당진 실로암교회(오충만 목사) ☎ 010-2203-0691
8(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9(금) 오전 천안 성실교회(서재철 목사) ☎(041)622-2460
12(월) 오전 부천 갈보리교회(조예환 목사) ☎(032)657-5177
12(월)~14(수) 김포 지구촌교회(전순용 목사) ☎ 010-5600-2756
15(목)~16(금) 서울 강남온누리교회(정민철 목사) ☎(02)555-0712
16(금) 오전 수원 주바라기사관학교(학장 손연순 목사) ☎ 010-9416-7800
17(토) 오후 서울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02)3411-9191
18(주)~21(수) 대전 세민교회(류재이 목사) ☎(042)635-6691
23(금) 오후 서울 명일성결교회(노희석 목사) ☎ 050-5454-0675
주최: 21C지구촌복음화부흥협의회(대표회장 김시중 목사)
26(월) 오전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02)436-1777
26(월)~28(수) 충주금식기도원(담임 고충만 목사) ☎(043)853-3990
30(금) 저녁 옥천 창대교회(민수경 목사) ☎ 010-7726-5122
31(토) 오후 서울 임마누엘교회(장기철 목사) ☎ 010-2440-9191

2월

1(주일) 오후 서울 글로벌축제교회(이애라 목사) ☎ 010-4870-7572
2(월) 오후 부천 행복교회(이화평 목사) ☎(032)344-3313
2(월)~ 4(수) 경기도 광주 한빛중앙교회(편무인 목사) ☎ 010-9271-7479
4(수)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상은 목사)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5(목)~ 6(금) 논산 비전선교센터(원장 정민철 목사) ☎ 010-5589-9191
9(월)~11(수)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원장 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12(목) 오후 서울 남현교회(이춘복 목사) ☎ 010-5589-9191
13(금) 오후 고양 주소망교회(이범만 목사) ☎(031)967-8230
16(월)~19(목) 새창원은혜교회(피은혜 목사) ☎ 010-8540-8642
22(주일) 오후 오산 한세교회(김인식 목사) ☎ 010-5555-0691

제188차 해외성회(188th Overseas Assembly)

23(월)~25(수) 미국(U.S.A) 뉴저지 벧엘장로교회(전광영 목사) ☎(609)707-2788
26(목) 오후 미국(U.S.A) 필라델피아 세한장로교회(고택원 목사) ☎(215)668-3599
27(금) 오후 미국(U.S.A) 뉴욕 서울장로교회(신우철 목사) ☎(917)683-5045
28(토) 오후 미국(U.S.A)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323)708-9191

3월

1(주일) 오전 미국(U.S.A) LA 안디옥교회(지윤성 목사) ☎(818)951-6172
1(주일) 오후 미국(U.S.A)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주최 3.1절 연합예배 ☎(323)931-9133
3(화)~ 4(수) 광주 샬롬선교센터(고정임 목사) ☎(062)432-6392
5(목) 저녁 안산 복음교회(안명철 목사) ☎010-9724-0991
6(금) 철야 수원 예바다교회(이란이 목사) ☎010-2483-0675

제189차 해외성회(189th Overseas Assembly)

9(월) 저녁 미국(U.S.A) 라스베가스제일장로교회(임인철 목사) ☎(702)454-2525
9(월)~11(수) 미국(U.S.A) LA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영성세미나 ☎(213)381-7755
12(목)~13(금) 미국(U.S.A) 네바다주 사막 노상 목회비전세미나
16(월)~18(수) 필리핀(Philippines) 앙겔레스제일교회(오세일 선교사) ☎070-8231-4862
19(목) 오전 필리핀(Philippines) 레인보우신학대학교(강희열 선교사) ☎070-7518-5977
19(목)~21(토) 필리핀(Philippines) 목회자 & 선교사세미나(대회장 강희열 선교사) ☎0929-453-5977
22(주일) 저녁 서울 꽃동산교회(김종준 목사) ☎(02)937-8334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전국남전도회연합회(회장 김기주 장로)
24(화)~27(금) 베트남(Vietnam) 호치민시 기도처유연합성회(대회장 장요한 목사) ☎010-5721-7004
28(토) 오후 부천 행복교회(이화평 목사) ☎(032)344-3313
29(주)~31(화) 서울 가나안교회(장병익 목사) ☎(02)2643-4296
29(주일) 오후 서울 글로벌축제교회(이애라 목사) ☎ 010-4870-7572
30(월) 오후 민족복음화부흥사연수원(원장 우광순 목사) ☎ 010-9021-8490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월

1(수) 저녁 서울 가나안교회(장병익 목사) ☎(02)2643-4296
2(목) 오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이억범 목사) ☎(02)2067-4500
3(금) 오후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5(주일) 오후 서울 글로벌축제교회(이애라 목사) ☎ 010-4870-7572
6(월) 오전 서울 미아교회(권순우 목사) ☎(02)980-4728
7(화) 오후 이애라글로벌찬양율동신학(학장 이애라 목사) ☎ 010-4870-7572
9(목) 오전 서울 중흥교회(엄신형 목사) ☎(02)476-7131
12(주일) 저녁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041)531-7216
13(월)~16(목) 군산 마라나타예수능력교회(김정빈 목사) ☎ 010-9679-8477
17(금) 오후 찬양경연페스티벌(운영위원장 피종진 목사, 대회장 이애라 목사)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19(주일) 오후 의왕 대흥성결교회(강환경 목사) ☎(031)424-1084
19(주일) 저녁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02)436-1777
20(월) 오전 평택 엘리야교회(이해왕 목사) ☎ 010-9000-1543
20(월) 저녁 대구 새생명교회(유학식 목사) ☎ 010-9901-8890
21(화)~22(수) D.W.M 세계선교회 지도자세미나
24(금) 오전 부천 행복교회(이화평 목사) ☎(032)344-3313
24(금) 오후 국제발혈처유협회 발사랑선교단(대표회장 전대박 교수)
장소: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24(금) 저녁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원장 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25(토) 오전 횡성 온누리기도원(원장 박병구 목사) ☎ 010-5348-0564
26(주)~29(수) 광명 방주교회(임영임 목사) ☎ 010-2339-5254
28(화) 오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주최: 잃은양찾기운동본부(본부장 강창원 장로)

5월

1(금) 오전 (재)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윤보환 목사)
3(주)~ 6(수) 서울 모래내교회(오석규 목사) ☎ 010-7248-0778
3(주일) 오후 서울 글로벌축제교회(이애라 목사) ☎ 010-4870-7572
7(월) 오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이억범 목사) ☎(02)2067-4500
10(주일) 오후 서울 벧엘교회(전해동 목사) ☎(02)491-6907
10(주일) 저녁 일산 능력비전교회(지미숙 목사) ☎ 010-6366-2548
11(월) 오전 연세대 총동문목회자부흥협의회, 제주도

제190차 해외성회(190th Overseas Assembly)

11(월)~13(수) 미국(U.S.A) NC 해외합동총회(Henderson C. University) ☎(980)329-0060
12(화)~13(수) 미국(U.S.A) NC 샬롯장로교회(김태선 목사) 연합성회 ☎(910)484-1566
14(목) 오전 미국(U.S.A) NC Faith University 대학생성회
15(금) 저녁 미국(U.S.A) 메릴랜드 소망교회(류도형 목사) ☎(443)765-7271
16(토)~17(주) 미국(U.S.A) 메릴랜드 세계로장로교회(이병완 목사)
☎(301)916-6108
18(월)~19(화) 미국(U.S.A) 백악관 초청 행사(Hyepinlm)
19(화)~20(수) 미국(U.S.A) 국무성행사 및 K.C.C.D Community대회
23(토) 오후 서울 강남온누리교회(정민철 목사) ☎(02)555-0712
26(화) 오전 오산 광은기도원(원장 김한배 목사) ☎(031)668-0553
29(금) 저녁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원장 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30(토) 오후 대한민국찬양율동기독예술제(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주최: 이애라글로벌찬양율동총회신학(학장 이애라 목사)
31(주) 오후 안양 은혜교회(정진모 목사) ☎(031)381-2777

6월

1(월)~ 4(목) 광복 70주년 제주특별자치도선교대회 및 수련회
주최: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최영식 목사)
3(수) 저녁 제주도 열린문교회(이수덕 목사) ☎ 010-4692-7008
5(금) 오후 양평금식기도원(원장 엄기호 목사) ☎(031)772-9113
6(토) 오전 일산 허늘사랑교회(손현로 목사) ☎(031)908-9182
8(월)~11(목) 필리핀(Philippines) 선교40주년 연합성회(대회장 전대구 목사) ☎63-920-901-6041
12(금) 철야 파주 세계로금란교회(주성민 목사) ☎(031)949-9121
13(토) 오전 파주 헤이리교회(김학필 목사) ☎ 010-5264-4276
14(주) 오후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041)531-7216
15(월) 오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원장 김상근 목사) ☎(02)2123-3243
15(월)~17(수)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수련회
19(금) 오전 국제범죄예방지도자세미나 (NGO)
19(금) 저녁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원장 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26(금) 저녁 천안 임마누엘교회(이규철 목사) ☎ 010-3428-9182

제191차 해외성회(191st Overseas Assembly)

29(월)~7.2(목) 미국(U.S.A) 필라델피아 세계NYSKC Conference
주최: Nyskc World Mission(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7월

1(수)~ 2(목) 미국(U.S.A) 필라델피아 세계NYSKC Conference
주최: Nyskc World Mission(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3(금) 오후 미국(U.S.A) 애틀란타 아가페선교교회(강진구 목사) ☎(678)462-7526
5(주일) 오전 미국(U.S.A) 애틀란타 새날장로교회(류근준 목사) ☎(678)380-4130
6(월)~ 9(목) 미국(U.S.A) 잔스크릭한인교회(이승훈 목사) ☎(770)623-0004
주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13(월) 오전 영목회 한국중앙회(대표고문 조용기 목사,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5(수)~17(금)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02)436-1777
16(목) 오후 무지개선교회(대표회장 전옥자 목사) 장소: 한국기독교여전도회관 ☎(02)5050-3422
19(주일) 오후 영동 용산교회(김종성 목사) ☎(043)742-9058
22(수)~25(토) 선교기관 수련회
24(금) 철야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원장 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26(주)~28(화) 경산 새생명교회 연합성회(준비위원장 김시철 목사) ☎(053)801-4744
27(월) 오후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장소: 서울 예정교회 대성전 ☎(02)435-4062
주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29(수)~30(목) NYSKC(HQ U.S.A New York) Family Conference KOREA 2015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장소: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
(준비위원장 류재이 목사, 박재준 목사) ☎(042)635-6691
31(금) 저녁 천안 임마누엘교회(이규철 목사) ☎ 010-3428-9182

8월

2(주일) 오후 대구 한빛교회(최태군 목사) ☎ 010-8575-3967
2(주일) 저녁 대구 명성교회(하성근 목사) ☎ 010-9367-8196
3(월)~ 6(목) 강화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2)937-9724
3(월) 오후 서울 강남온누리교회(정민철 목사) ☎(02)555-0712
6(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7(금) 오후 대전 총신평생교육원(원장 한영동 목사) ☎(042)634-8301
10(월) 오전 대전 평강교회(이하종 목사) ☎ 010-9195-9592
10(월)~11(화) 대구 글로벌하나님의병원(원장 강은숙 목사) ☎ 010-6358-8999
12(수) 오전 일산순복음영산교회(강영선 목사) ☎(031)901-0191
14(금)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함덕기 목사) ☎(031)947-0091
16(주) 오후 화성 봉담중앙교회(이 선 목사) ☎(031)227-0241
17(월) 저녁 강릉 베데스다기도원(원장 이강호 목사) ☎(033)647-1501
18(화) 오전 미리암선교회(회장 박은주 목사) ☎ 010-4737-0691
18(화) 저녁 가평 불기둥기도원(신성자 목사) ☎ 010-4393-5400
19(수) 오후 서울 모리아교회(윤요셉 목사) ☎ 010-8966-1180
20(목)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함덕기 목사) ☎(031)947-0091
21(금) 오후 드림선교회(임종수 장로),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21(금) 철야 천안 임마누엘교회(이규철 목사) ☎ 010-3428-9182
24(월)~26(수) 충주금식기도원(원장 김승자 목사, 담임 고충만 목사) ☎(043)853-3990
27(목) 오후 양주 실로암기도원(원장 고화순 목사) ☎ 010-6223-0613
31(월) 저녁 김해 주안교회(정상은 목사) ☎(051)322-5707

9월

1(화)~ 2(수) 김해 주안교회(정상은 목사) ☎(051)322-5707
3(목) 오후 대전 힐링교회(장요한 목사) ☎(042)488-0191
6(주)~ 8(화) 인천 성문성결교회(김용남 목사) ☎ 010-5474-8515
7(월) 오후 안산 칼빈성서신학(학장 백재현 목사) ☎ 010-7404-8541
10(목) 오후 (사)조이플러브(대표이사장 한재섭 목사) ☎ 010-6239-0691
13(주일) 오후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041)531-7216
14(월) 오후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박사 대학원 목회연구원(원장 이 선 목사) ☎(02)520-0801
14(월) 오후 민족복음화부흥사연수원(원장 우광순 목사) ☎ 010-9021-8490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5(화) 오후 부천 소양교회(정효신 목사) ☎ 010-9600-1617
16(수) 오후 속초 로뎀수양관(원장 여호수아 목사) ☎(033)633-8589
17(목) 저녁 대전 제일큰교회(김창수 목사) ☎(042)524-9106
21(월)~23(수) 공주 한성행복한교회(홍사라 목사) ☎ 010-5458-6040
25(금) 저녁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원장 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제192차 해외성회(192nd Overseas Assembly)

28(월)~30(수) 인도(India) 방갈로 연합성회 주최: 기도치유아카데미(원장 장요한 목사)
30(수)~10.2(금) 인도(India) 뉴델리 연합성회
주최: Nyskc World Mission(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10월

1(목)~ 2(금) 인도(India) 뉴델리 연합성회
주최: Nyskc World Mission(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4(주일) 오후 성남 예수동행교회(김동우 목사) ☎ 010-5202-7723
5(월)~ 8(목) 캄보디아(Cambodia) 성회
11(주일) 저녁 군산 한빛교회(정명희 목사) ☎(063)467-0691
12(월) 오후 서울 강남온누리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12(월)~14(수) 서울 주성령교회(남보석 목사) ☎ 010-7220-0733
18(주) 저녁 서울 대평교회(이능규 목사) ☎ 010-3660-7147

제193차 해외성회(193rd Overseas Assembly)

19(월)~20(화) 일본(Japan) 요까이찌중앙교회(선안수 목사) ☎ 070-4656-3836
21(수)~23(금) 일본(Japan) 요까이찌 아야마기도원(원장 남덕순 목사) ☎ 070-4656-3836
26(월) 오후 (사)순성 목회자사모세미나 장소: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26(월) 오후 안산 칼빈성서신학(학장 백재현 목사) ☎ 010-7404-8541
26(월)~27(화) 김포 지구촌교회(전순용 목사) ☎ 010-5600-2756
29(목) 오후 서울 강남온누리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30(금) 저녁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원장 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11월

3(화) 저녁 필리핀(Philippines) 앙겔레스 체육관 연합성회
4(수) 오전 필리핀(Philippines) 원주민 목회자세미나
4(수) 저녁 필리핀(Philippines) 앙겔레스 체육관 연합성회
5(목) 오전 필리핀(Philippines) 한인선교사 및 목회자세미나
5(목) 저녁 필리핀(Philippines) 앙겔레스 체육관 연합성회
7(토) 오후 대전 DWM 다드림국제선교예술제(이사장 피종진 목사, 원장 전정순 목사)
8(주)~11(수) 서울 서서울중앙교회(한영훈 목사) ☎(02)2602-5112
9(월) 오후 서울 강남온누리교회(정민철 목사) ☎(02)555-0712
9(월) 오후 안산 칼빈성서신학(학장 백재현 목사) ☎ 010-7404-8541

제194차 해외성회(194th Overseas Assembly)

13(금) 오후 미국(U.S.A) LA 주님예교회(최 훈 목사) ☎(415)320-9321
14(토) 오후 미국(U.S.A) LA 은혜교회(한기홍 목사) ☎(714)446-6200
15(주) 오전 미국(U.S.A) LA 미주베델교회(정요한 목사) ☎(213)422-9191
17(화)~18(수) 서울 온누리선교교회(곽병구 목사) ☎(02)2245-0564
19(목)~21(토) 미국(U.S.A) 펜실베니아 Global Mission College(Joseph Kim) ☎(267)575-5617
22(주일) 오전 미국(U.S.A) 뉴욕 주찬양교회(김희복 목사) ☎(646)270-9037
23(월) 오전 미국(U.S.A) 뉴욕 campus(워싱턴 Nayot신학대학원[학장 김희복 박사])
23(월)~25(수) 미국(U.S.A) 뉴욕 할렐루야교회(한기술 목사) ☎(718)225-0303
24(화) 오전 미국(U.S.A) 뉴저지 campus(워싱턴 Nayot신학대학원[학장 김희복 박사])
26(목)~29(주) 미국(U.S.A) 아틀란타연합성회(준비위원장 김영언 목사) ☎(215)771-9191
30(월) 오후 미국(U.S.A) 아틀란타 해외합동총회 연합성회(총회 서기 김영언 목사)

12월

1(화) 오후 미국(U.S.A) 아틀란타 해외합동총회 연합성회(총회 서기 김영언 목사)
7(월)~11(금) 대만(Taiwan) 성회
10(목) 오후 (재)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윤보환 목사)
13(주)~16(수) 동해 명성교회(이영택 목사) ☎(033)533-6455
14(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상은 목사)
장소: 남서울중앙교회(원로목사 피종진, 담임목사 여찬근) ☎(02)3411-9191
18(금) 저녁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원장 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21(월) 오후 서울 강남온누리교회(정민철 목사) ☎(02)555-0712
25(금) 오전 남서울중앙교회(피종진 원로목사, 여찬근 담임목사) ☎(02)3411-9191
31(목) 저녁 남서울중앙교회(피종진 원로목사, 여찬근 담임목사) 송구영신축복대성회

피종진 목사TV, 인터넷, Radio 방송설교

- CTS 기독교TV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4:30
- CBS 위성TV방송 - 매주 일요일 오후 5:30
- GoodTV방송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 기독교인터넷방송 - www.c3tv.com
- 인터넷복음방송 - www.Jesus119.net
- CBS인터넷방송 - www.cbs.co.kr
- Jesus-tv인터넷방송 - www.jesus-tv.net
- 기독TV인터넷방송 - www.kidoktv.net
- 국민일보 쿠키미디어방송 - www.kukinews.com
- 하야인터넷방송 - www.jchn.or.kr
- 미주크리스천헤럴드방송 - www.christianherald.com
- 월드미션뉴스인터넷방송 - www.wgnews.org
- 크리스천헤럴드방송(LA) - 매주 화요일 밤 11:30
- 미국라디오한국선교방송(워싱톤주) - 매일 오전 5:20
- 북가주복음방송(캘리포니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워싱톤기독교복음방송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 : (02)3411-9191,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77@gmail.com